

학사제도를 비교·분석한다 ③

학점교류제 대상대학 확대해야

교류대학 외대 유일 ... 계절학기 교류 등 방안모색 필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교류가 적극적인 홍보와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교류대학도 서울지역에서는 외대가 유일하다 보니 선택의 여지조차 없다. 현재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은 해외대학이 50개인데 비해 국내 대학은 외대 이외에 원광대학교와 제주대학교, 경남대학교 등 6개이다.

의 대학과 학점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6명이 교류했다. 13개 대학과 협정을 맺은 서울대의 경우 매년 300명이 넘는 인원이 학점을 교류하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한국의국어대학교(이하 외대)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으며 양 대학간 학생교류를 실시해 왔으나 4년간 교류인원은 22명이며, 이중 본교 학생은 9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학기에도 본교 학생 3명만이 외대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또한 학점교류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거리상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거나 수업강좌나 에어로빅 같은 흥미위주의 교과목을 듣는 경우도 많아 학점교류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고려대와 이화여대, 외대의 경우 계절학기에도 학점교류를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계절학기 교류는 방학중 이뤄져 학교를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박정환(사회2) 군은 "외대생이 수업에 들어와 교류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됐다"

본교와 달리 타대학의 경우는 학점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교류 학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키면서 각 대학마다 학점교류제는 정착되고 있다.

송석구 총장 취임

총장협 제3대 회장 송석구 총장 취임



송석구(철학) 총장이 한국대학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총장협 이사회에서 송 총장은 회장에, 초대 회장을 지낸 박재규(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 북한대학원장은 제2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공교육 정상화 노력 요구

지난 21일 교육주체 결의대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철폐,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지난 21일 여의도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3천여 교육주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대발전계획과 전문대발전계획안 철회 △자립형 사립고 도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표된 국립대발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20%의 인상을 통해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민영화 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대 장종오 총학생회장은 "발전계획에 따르면 3년 후 2004년에는 국립대 등록금이 420만원이 된다"며 "국립대를 민영화시키려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기원 ... 강정구 교수의 석방을 기원하는 릴레이 3천배가 지난 20일 불상 앞에서 진행했다. 맺히는 땀방울이 늘어갈수록 이들의 바람은 더 간절해진다. > 판권기사 2면(학내보도)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ac.kr

교수회 "연봉제 교수신분 불안 초래"

학교와 설계시안에 대해 토론 ... 교육부 방침따라 확정될 듯

내년으로 예정된 교수 연봉제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들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연봉제가 교수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연봉제 시행에 전면거부를 외쳐온 교수회(회장=심익섭·행정학)는 교원 연봉제 설계 시안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측과 지난 19일 연봉제토론회를 가졌다.

의 대학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연봉제 실시 이전에 기본적인 교육환경조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연봉제가 교수신분을 위협하는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를 표명했다. 교수회가 본교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71명 중 53명인 74.6%가 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응답자의 33.8%는 "교수신분보장과 관련된 계약제외의 연관성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터 연봉제를 실시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측 답변자로 출석한 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인사처장은 "연봉제는 연구를 장려하는 인센티브개념"이라며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앞으로의 교육부 방침에 따라 유보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교수들과의 마찰로 처음 연봉제 전면 시행 방침을 번복하고 적용범위 축소나 단계적 시행, 시행연기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외국인 선발기준 강화

국어필답시험과 거주기간 등 지원자격 추가

2002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선발기준이 강화된다. 전형선발기준에 따르면 서울캠퍼스 인문·자연계열의 경우 면접 100%반영을 국어필답시험 50%와 면접 50%로 변경했다. 지원자격의 경우 인도네시아, 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년이상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전형부터는 5년이상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부모가 국내에 직업을 갖고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경우 근무국에서 종교고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재학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과정도 1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알림: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1일자 신문은 쉽니다. 다음 신문은 10월 8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면안내

- 통일 지향의 민족주의 6~7면
언론개혁 대안은 있는가 4면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5면
주제적인 우리 명절문화 위해 11면



비폭력

최 승 천 (참여불교재가연대)
이 글을 쓰는 지금 방송들은 미국의 전함과 전폭기들이 걸프만을 향해 이동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테러와 복수의 악순환이 또 시작된 것이다. 무고한 시민이 테러에 의해 희생당한 사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가슴아픈 일이다. 반인륜적 범죄를 두둔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모한 테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테러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보복일 뿐이다. 이어지는 폭력의 순환고리는 결국 또 다른 테러리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미국내 한 평화운동가는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에 팔아먹는 파괴의 무기 대신 세계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수백억달러 규모의 원조를 보내야 한다. 진정한 미국의 안전은 미국이 전세계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티베트의 불교지도자 달라이라마는 "모든 폭력은 오로지 파괴를 가져올 뿐이며, 이러한 것들은 비폭력의 길을 방해한다"면서 "갈게 보자면 비폭력만이 테러리즘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식 '전쟁불사' 논리가 판치는 살벌한 속에서 터져 나온 양심의 소리들이다.
그동안의 대규모 보복은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가져왔다. 이번의 경우도 아무 죄없는 이프간 국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무역센터와 납치된 비행기 안의 사람들의 '죄없는'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태가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법구경' 분노품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원한을 갚되 원한으로 갚지 마라. 원한을 인내로써 갚으면, 마침내 원한은 끝나나니 이것을 부처님 법이라 한다."
미국이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세계인류를 상대로 자행해온 패권정책을 중단하는 데 있다. 기존의 미국식 평화와 정의는 이제 수정돼야 한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공(空)돈이 아닌 공(共)돈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마구 뽑아 쓰던 휴지. 공짜라구요? 아직 '공'자에 대해 잘 모르고 있군요. 당신은 공(空)돈이 아니라 공(共)돈을 쓴 겁니다. 공공시설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동대신문사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신문사 수습기자모집. 모집인원: 경주캠퍼스 00명. 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휴학생 제외). 모집분야: 취재·사진 기자.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②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장 분량). 원서마감: 10월 10일(수) 오후 6시. 선발방법: 필기시험과 면접. 선발일시: 10월 11일(목) 오후 6시. 장소: 본사 회의실. 문의전화: 054)770-2057, 2058.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회전무대

접속 망부석

○...지난주 동국관 BSC실에는 컴퓨터 앞에서 망부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알아보니 컴퓨터 점검을 위해 인터넷 포가드 시스템을 설치하면, 인터넷 접속을 느리게 하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이라고.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능이라고는 하나 이용하는 학생들은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인터넷 포가드 시스템=인터넷 포기 가이드 시스템?"

다용도 정수기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요즘 각 건물에 설치된 정수기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 때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정수기에서 물 먹는 것 외에도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는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물을 튀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데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동국인의 뽀얀 피부, 비결은 정수기 물."

안개주의보

○...동국관 M동 5층 계단에 시도 때도 없이 뿌연 안개(?)가 끼어있다는데. 알아보니 흡연실이 없어진 이후, 일부 흡연자들은 욕상에 올라가는 것이 귀찮아 5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라고. 이로 인해 계단을 오르는 학생들은 원치 않는 담배연기를 어쩔 수 없이 맡게 돼 불만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동국관 5층 계단에 안개주의보(?) 발효, 모두 마스크를 꼭 준비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유래, 상래? 불래!

○...요즘 동국관 곳곳에는 텃빈 벽을 보며 허탈한 표정을 짓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 알아보니 기한이 채 지나지 않은 대자보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라고. 기간이 지난 게시물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실수로 대부분의 대자보가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초고속 대자보 제거용 재가페스."

넘치는 '차량' 줄어든 '주차공간'

학교, 제재조치 소극적 ... 통행차량 제한 등 대책 마련 시급

'교내를 다니다 보면 주차장 마로 속을 해매는 것 같다'는 것이 최근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내 주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가 관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현재 하루 평균 주차량은 약 600여대로 학내 주차가능 대수인 343대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는 주차가능 대수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루 250대가 넘는 차량들이 해화관과 동국관 출입문 앞 등 주차금지 공간을 차를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아로나 다량관 앞은 보행로까지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학생은 "학내 전체가 마치 주차를 위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주차가능 공간에 상관없이 학내 통행 신고 차량에 대해 대부분 출입을 허가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도사신관 공사도 지난 학기보다 약 60대의 주차 공간이 줄었지만 허가차량은 1411대로 오히려 약 100여대가 늘어났다. 여기에 세미나, 기타 행사에 참가하는 외부차량의 임시주차까지 무단주차 수는 상당하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10부제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10부제

를 위반할 경우 2회 적발까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부터 개인에게 경고공문을 보내고 있어 벌금 부과와 같은 실질적인 제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차관리직원에 의하면 2~3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교수의 경우 10부제에 차량이 해당되면 등록되지 않은 차로 바꿔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10부제 적발만 해도 항의가 빗발친다"며 "제재조치를 강화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내 통행차량을 제한하는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한 달에 일만원인 주차료를 대폭

인상하고 주차 가능공간을 고려해 구성원 별로 허가 가능한 차량 수를 할당해 허가해야 한다. 특히 동악로, 통일광장 등 통행이 잦은 곳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주차를 절대 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부제를 5부제로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통행을 금지시키는 등 확실한 규제 조치를 마련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내년 후반기 도서신관의 완공과 함께 70여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만 현재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술> chof55@dongguk.edu

2학기 수강신청 취소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200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취소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수강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업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와 상담하고, 수강과목 취소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대학 교학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정문공사로 차량진입만 가능 다음달 5일부터 우수관 교체

다음달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정문 우수관 공사가 실시돼 정문으로 나가는 모든 차량이 통제된다. 공사 기간동안 정문은 일방통행이 실시되어 진입만 가능하며 이와 관련해 사무처(처장=황영수)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차량이 정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동국관 주변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는 장마철 지하의 토양 유실과 우수관의 부패 때문에 실시하게 됐다. 한편, 시설관리팀은 오늘(24일)부터 장충수영장 벽면에 담쟁이덩굴 화분을 설치한다.

'송편배우기' 행사 27일 외국인 교환학생 대상

'송편배우기·사랑나누기' 행사가 오는 27일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산관에서 열린다.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 떡볶이 전문가의 시연, 예쁘고 특창적인 송편 시상 등이 진행되며, 교환학생들과 함께 세계의 추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한 이날 만들어진 송편은 참사람봉사단 단원들이 중구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신명나는 가을축제 한마당 문과대 26일·경영대 27일

단과대 가을축제가 이번주에도 계속된다. 문과대 학생회(회장=이재광·철4)는 '2001 명진 한마당, 한울림'을 오는 26일 명진관 앞에서 개최한다. 풍물패의 사전마당으로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축제는 1부 △1학기 사업보고 △노래패 공연, 2부 △반·과별 장기자랑

△시상식이 진행된다. 또한 경영대 학생회(회장=김성호·경영3)는 오는 27일 동국관 앞에서 '동백한마당'을 개최한다.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영대 상반기 사업보고 △트윅 OX 퀴즈 △'미국이란 나라' 마당극 공연 △미테라 관련 영상물 상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학과별 대항으로 진행되는 농구와 축구 경기는 오늘(24일) 예선을 시작하며 이날 본 행사에 앞서 1시부터 결승전을 치른다.

통일대행진 오늘부터 신청 학생회·커뮤니티통해 접수

'민족통국 통일대행진' 접수가 오늘(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문산부터 임진각까지 코스로 진행되는 이번 통일대행진은 단과대 학생회실이나 백상예술체전 커뮤니티(www.freechal.com/dongguk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상예술체전 개막식은 임진각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대행진 참가자 모두에게는 도시락과 기념 T셔츠, 손수건이 제공된다.

총여, 성폭력 토론회 개최 오는 26일 본관 중앙당에서

사회학과 K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본 교수 성폭력 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6시에 본관 중앙당에서 열린다. '심판대에 오른 성폭력'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양김유미(영문3) 부총여학생회장, 여성민우회 권수현 간사, 전 이지숙(회계4) 총여학생회장이 K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본 교수에 의한 성폭력과 반 성폭력 학칙에 대해 발제한다.

'... 시장환경 변화와 소비자' Peter Boyle 교수초청 세미나

'정보화 시대의 시장환경 변화와 소비자' 세미나가 오는 26일 오후 3시 학림관 408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워싱턴대학의 Peter Boyle교수와 가정교육과 박명희 교수를 비롯한 5명이 △정보화 시대의 시장환경변화 △정보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교육 방향 △소비자학 연구의 방법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 대처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강정구 교수 기소 ... 보석신청 계획

강단복귀 여부 최종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듯

'만경대 방명록 파문'으로 구속된 강정구(사회학) 교수가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기소일로부터 3주 내에 열리는 1차 공판전까지 강 교수는 보석신청을 낼 계획이다.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될 경우 강교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면직된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 이는 무효처리되므로, 강정구 교수가 본교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을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 교수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행사사건에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 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학교측은 조만간 직위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정구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동국대 투쟁본부(상임대표=김종연·사회2, 이하 투쟁본부)'는 지난 20일 명진스님과 함께 총장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석구(철학) 총장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고, 지금까지 행사사건에 기소된 교수들에게 모두 적용됐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불상 앞에서 강 교수 석방을 위한 릴레이 3천배를 울리기도 했다.

한편 강정구 교수 석방대책위원회(상임대표=홍근수 외)는 지난 20일 강정구 교수 구속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왜곡 보도행태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제·토론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균 변호사는 "강교수 사건은 초기와 달리 성격이 변해 방북 전의 저작이나 강연 등에 대해 북한의 반미자주노선과 유사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의 '이적성' 부분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인의 향기 ... '시와 노래가 함께 하는 텃밭'이라는 주제로 지난 21일 본관 중앙당에서 문학·문화공연이 열렸다. 이날은 특별히 신경림 교수가 방문해 학생들과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문미 기자 kiza41@dongguk.edu

하반기 학생대표자회의 '절반 성사'

개회 불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 못해

2001년 하반기 학생대표자회의가 지난 19일 성사됐지만, 회의 도중 정족수 미달로 실질적인 의결은 하지 못했다. △하반기 학원자주화투쟁 △강정구 교수 구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이번 회의는 1년 반만에 전체 대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개최됐지만, 논의 안건이 시작되기 직전 많은 대표자들이 자리를 떠나 의결권이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로 넘어갔다. 한편, 지난 17일 정용길 기획인사

처장을 비롯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모인 가운데 열린 등록금 면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면담은 지난 5월 발표된 예·결산안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록금에 관한 학교와 학생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원칙 해 개회했지만, 논의 안건이 시작되기 직전 많은 대표자들이 자리를 떠나 의결권이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 소집공고

1. 교육대상 : 1학기 교육 불참자 및 2학기 전입자중 교육 미실시자
2. 교육일정

일시	9.27(목)	9.28(금)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대상자	2시간, 4시간 대상자

- ※ 예비군 연대본부에서 교육대상자 명부 열람 및 교육시간,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할 것
- 3. 교육장소 : 노고산 종로·중구훈련장(219연대)
- 4. 유의사항
 - 가. 교육소집통지서를 본인직접 수령할 것
 - 통지서 교부일 : 2001. 9.20 ~ 9.25(5일간)
 - 교부장소 : 예비군연대본부(대학본관 2층)
 - 나. 예비군 복장준수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편 등
 - 복장불량 시 교육장입소 불가
 - 다. 훈련장 입소시간 준수
 - 훈련당일 오전 8시까지 정문포과
 - 지연도착시 귀가 조치(교육불참처리)
 - 라. 신분증휴대
 -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 신분증 분실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사전확인바람

예비군연대

수강신청강좌 취소

2001-2학기 수강신청강좌에 대한 취소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신청기간 : 2001. 9.27(목) ~ 28(금), 2일간
2. 장 소 : 소속대학 교학과, 야간강좌 교학처
3. 수강과목 취소처리 절차
 - 가. 교학과에서 취소신청서 교부
 - 나. 학업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와 상담(승인포함)
 - 다. 소속대학 교학과에 취소신청서 접수
4. 유의사항
 - 가. 수강과목을 취소한 자는 다른 과목 신청이 불가함
 - 나. 수강신청 취소후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취소가 불가함
 - ※ 금학기부터 4학년(1, 2학기) 학생은 3학점 초과학점 취소가능(학년 기준)
 - 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신청학점이 아닌 취득학점이므로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람
 - ※ 17학점이상 취득 (불교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은 15학점)
 - 라. 졸업시 3.4학년 전문교육과목에서 제1전공 및 제2,3전공의 전공 최저 이수학점 1/2 이상 취득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취소신청 하기 바람
 - 마. 취소과목은 해당학기 성적통지표에만 표기(W)되며 증명서에는 미표기

교무처

언론사 준비반 입실시험

1. 시험일시 : 2001년 10월 12일(금) 오후 2 : 00 ~ 3 : 30
 2. 접수일시 : 2001년 10월 8일(月)부터 10월 10일(水)까지
 3. 접수장소 : 신문방송학과 사무실(동국관 3층 연구실 맞은편) 학생증사본, 성적증명서, 영어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
 4. 시험자격
 - ① 현재 3학년 재학중인 학생 또는 휴학생(3학년)인 자
 - ② 2001년 2학기 현재 전학년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③ 남자인 경우 군필자 내지 면제자
 5. 시험과목
 - ① 1차시험 : 영어, 논술
 - ▶ TOEFL : PBT 600점, CBT 250점 이상인 자, TOEIC 900점 이상인 자는 영어시험 면제(단 2년 내의 성적표 제출)
 - ② 2차시험 : 면접(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합격자는 개별통지)
- ※ 문의 : 2260-8723(신문방송학과 사무실)

<언론사 준비반> 운영위원회

단전 및 단수 안내

1. 기 간 : 9. 29일(토) 00:00 ~ 10. 3일(수) 24:00까지 (5일간) (추석 연휴기간 중)
2. 대 상 : **학교 전체**
3. 협조사항
 - 가. 공사기간 중 교내 전체건물 출입자 통제
 - 나. 열람실 이용 (중앙도서관 1층 제1열람실)

사 무 처

쌀재고 과잉문제의 해결책 논단

대북식량원조로 '쌀밥공동체' 이룩해야

작년말부터 쌀 재고과잉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쌀 가마태우기, 논갈아엷기 등으로 반발하고 있고, 햅쌀 수매를 주저하는 농협 RPC들은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2004년 WTO 재협상 이후 현재 MMA 방식 수입 물량 이상의 고품질 외국쌀이 도입된다면, 한국 쌀산업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쌀은 농업경제의 버팀목

쌀은 농업 소득의 약 1/2, 농가 소득의 약 1/4을 차지하는 중요한 작목이다. 또한 불안한 동북아 정세와 국민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주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적절한 계절진폭이 형성되지 않고 과잉재고의 방출로 인해 쌀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 농업 소득의 감소와 급격한 작물 전환 및 연쇄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을 불러, 농가·농촌경제의 안정성 저해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 전체의 식량안보 확보에도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남은 쌀 문제 해결은 단순히 수급·가격

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급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측 모두를 아우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산지 쌀가격을 안정시켜 쌀농가들의 영농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2000/2001 양곡년도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 동결을 선행해야 한다. 정부 재고 부담의 경감과 양곡 관련 재정의 건전화는 명목으로 재고미를 무리하게 방출하면, 계절진폭의 축소와 재고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시장에서 쌀값 폭락을 초래하여 RPC와 농가 모두의 경영 능력을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다.

품종의 보급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재고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측 모두를 아우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산지 쌀가격을 안정시켜 쌀농가들의 영농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2000/2001 양곡년도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 동결을 선행해야 한다. 정부 재고 부담의 경감과 양곡 관련 재정의 건전화는 명목으로 재고미를 무리하게 방출하면, 계절진폭의 축소와 재고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시장에서 쌀값 폭락을 초래하여 RPC와 농가 모두의 경영 능력을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다.

소비축진·지원정책 병행해야

과잉재고의 주된 원인은 소비자 생활 패턴의 변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소비 감소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변화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축진책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의 푸드 스탬프(Food Stamp)와 같은 방식의 빈민층에 대한 농산물 지원, 학교·군대 급식용 고품질 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쌀과자·음료·전통 민속주 등의 제



권승구 생명자원과학대 생명자원산업유통학과 교수

조·판매의 활성화, 쌀을 이용한 각종 식품의 개발·보급 등 국내 소비 촉진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상과 같은 국내 소비 촉진책만으로는 부족한 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때마침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쌀지원 반대 입장을 펴 오던 야당의 태도 변화로 그 어느때보다 쌀지원을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어가는 상황이다. 1984년 한강 대홍수 당시 북한이 보여준 호의에 보답한다는 관점에서라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 지원(장기저리 지원, 구상무역 형태, 무상지원 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FAO나 WFP 등 UN 산하 국제기구를 통한 제3세계 국가에의 식량 지원도 높아진 국제사회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가격결정 논란

환자 인권보다 특허권이 우선인가

제약사·정부간 의견대립 ... 합리적 재조정 필요

'기적의 약'은 끝내 환자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인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가격 결정을 두고 정부와 제약사간에 줄다리기가 진행중이며, 한편에서는 환자들이 가격인하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글리벡은 '기적의 약'이라 불릴 정도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인 약으로 국내에는 지난 6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국내 시판 뒤 진행된 보험약심의신청에서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한 알당 1만 7천 86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글리벡 제조사인 스위스 노바티스가 요구하고 있는 한 알당 2만 5천원의 71.5% 수준으로 노바티스는 이번 가격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약가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글리벡을 비보험약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환자들은 한달에 300만원에 이르는 약값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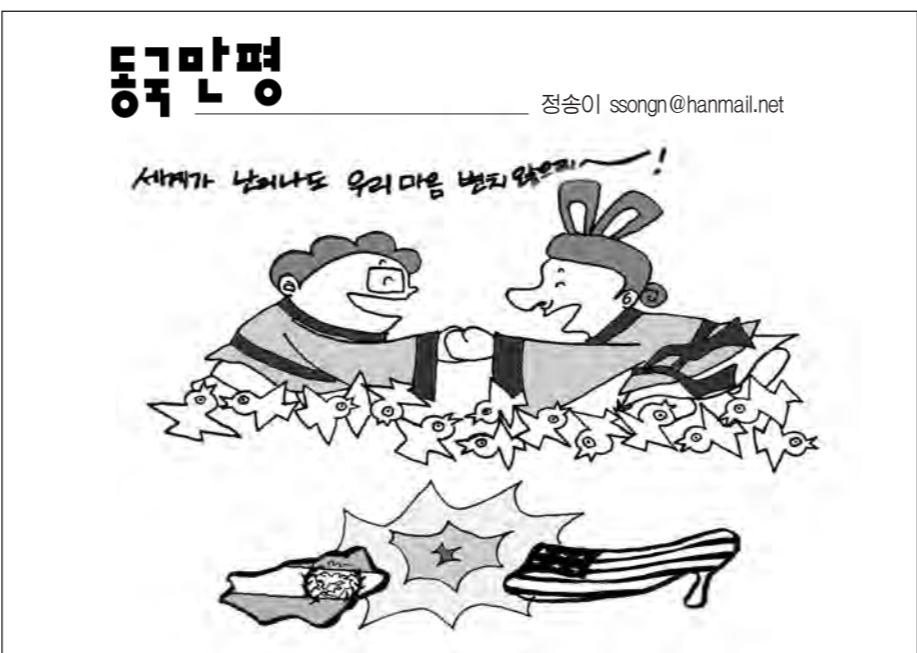
새빛누리회의 한 관계자는 "가격이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기적의 약'을 사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될 수밖에 없

다"고 비판했다.

노바티스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약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위스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에서 모든 나라에서 같은 가격을 고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라며 "본사가 정한 가격을 한국지사가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독교민연대 김상운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서 글리벡 값은 오히려 높은 편이라며 "신약의 경우 각 나라의 경제수준을 고려해 국가별로 약값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기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바티스가 자신들의 소중한 연구의 성과물이라 주장하는 글리벡이 각종 세금 감면과 연구비 지원 등 혜택을 받으며 개발됐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의료단체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유명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비용 중 80%가 세금으로 충당됐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민중의료연합 정혜주 공공의약품장은 "글리벡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의 가격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특허권을 내세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초국적 제약사



본의 횡포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인구의 20%가 에이즈 감염자이지만 치료제가 너무 비싸 대다수 국민이 약을 복용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예를 들었다. 특허권을 주장하며 약값이 높은 가격을 매기는 제약회사로 인해 필요한 약을 사먹지도 못한 채 매일 3만명이 넘는 제3세계 민중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오세정(물리학) 교수는 "특허권의 추구도 어느 단계에서 그만 둘 수 있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제도는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연구 성과에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 연구를 촉진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인권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특허권이 처음 도입된 14세기보다 훨씬 오래전 일이며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권을 특허권보다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글리벡 가격을 둘러싼 논쟁도 이런 대다수 사람들의 기본적 인식을 토대로 접근한다면, 문제해결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사설

언론개혁에 대학생이 나선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언론개혁운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전국 15개 대학의 200여 학생들은 '조선일보 반대 전국대학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언론개혁'이라는 화두를 '학생대중'에게 던졌다. 그동안 '우리모두'라는 안티조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발자로 활동했던 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안티조선 문화제'를 열고 이 안에서 '전국대학 조선일보 반대모임' (이하 조반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현재 각 대학 조반모에는 안티조선 운동에 대해 '배간돼야 한다. 논지만 바꾸면 상관없다,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여러 정치적 사안의 견해차이로 안티조선 내부의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억지스러움보다 '안티조선'이란 입장에 동의만 하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조반모의 입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무엇보다 열린 사고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주항쟁에서 87년 6월 항쟁까지 사회개혁의 기폭제로 나섰던 학생들이 최근 언론개혁운동에는 대단히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반모의 결의는 시대의 진실을 밝히려던 학생운동의 역사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불의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반갑다.

언론개혁을 위한 대학생들의 운동은 이제 하나의 학생운동, 사회운동으로 변화되어 대학생들이 '진실의 참병'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보수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의 선두격인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해 새로운 진보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캠, 총여 올바른 선택 기대

경주캠퍼스 여학생 휴게실 개·보수공사 문제가 총여학생회의의 문제 제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생 휴게실의 자치권확보를 가장 큰 문제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근거가 진정 여학생들을 위한 반대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현재 총여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맞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자치권을 위해 여학생 휴게실에 행정기구가 들어서면 안된다는 총여의 논리에 대해서다. 상주 직원이 생기게 되면 어떠한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것인지, 다시 말해 여학생실의 사무실이 휴게실에 들어오게 될 경우 학생들에게 어떤 제한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여학생 휴게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상주 직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사안의 언급 없이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호소문을 해 나간다면 하나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총여는 여학생들의 대표기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여 집행부들의 최소한의 활동범위가 보장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비록 그들의 공간이 좁아질 지라도 모든 여학생들의 휴게실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학생회의의 모습이 아닐까.

이들은 분명, 여학생들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했으며, 당선됐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여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까울 나롭다.

총여는 말 그대로 모든 여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어느 것이 진정 여학생들을 위한 선택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학교는 현재 단절된 의사소통을 조속히 재개하여 효율적인 공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부주장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은선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언론문제, 대안은 있는가?

신뢰있는 언론, 해결책은 기자정신

'한국언론의 시대적 과제' 토론회 ... 다양한 대안 모색돼

올해들어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탈세 언론사주가 구속되는 등 그동안 진행된 언론개혁 운동이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8.15 통일대축전 보도처럼 일부 보수언론은 왜곡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계속된 언론개혁 운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획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1. 언론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2. 언론문제, 대안은 있는가.

편집자

현 시점에서 한국언론은 어떻게 평가 받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언론재단(이사장=김용술)은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의 시대적 과제' 대토론회를 열었다.

제1부에서는 '한국언론의 신뢰도 위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서울대 강명구(언론정보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먼저 강 교수는 지난 5~8월에 실시한 언론인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언론인들의 신뢰감소 원인을 "사회변화라는 언론 외적요인과 언론시장의 변화, 독자·시청자의 변화에 대한 언론사의 인식변화 등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뢰도 감소요인과 관련, 언론학자와 언론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상위에 오른 항목을 보면 △자사이기주의 △사주의 간섭에 의한 왜곡보도 △언론인의 자질·직업윤리 부족 △수용자와 유리된 언론의 오만한 자세 등이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강 교수는 "현재 추락된 한국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회변화를 읽어내는 성찰적 저널리즘 도입 △독자·시청자를 사회공론장의 참여자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 △기자의 전문성 강화 △기자정신 강화를 위한 전문단체의 실천방안 강구 △자외적 의

제실정관행 불식 △편집방첩의 이념적 지향성 유지 △광고주 영향경계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성병욱 중앙일보 상임고문은 "취재·보도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신문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언론인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신문윤리위의 제재조치를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MBC 미디어비평 진행자인 손석희 차장은 "90년대 이후 탈정치화 현상과 함께 프로의 오락화, 과도한 시청률 경쟁이 결과적으로 신뢰도 저하를 초래했다"고 분석하며 "무분별한 외신보도 인용과 대북 관련 적대적 시각도 여전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예아카데미 김상봉 교장은 "그동안 공공영역에서 사유·판단을 위입해 온 언론에 대해 절대적 신뢰를 보여왔던 수용자들이 언론보도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색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끝으로 강 교수는 사회의 신경망 구실을 하고 있는 언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언론이 시민사회를 교육하는 권력집단으로 군림하거나 기업적 이익에 봉사할 경우 신뢰도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편집권 독립의 제도화 방안'과 '신문의 경영투명성과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제2주제 발표자인 광운대 주동환(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편집권독립의 필요성과 외국신문의 편집권 질서 형태를 설명한 후 "중요한 문제는 매일 매일의 지면제작이 간섭받고 있는 현실이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라며 "편집권 독립은 귀속 등 관념적인 문제보다는 독립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는가의 실용적인 과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3주제 발표에서 한림대 정연구(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경영투명성 담보방안으로 법적 개선안과 제도적 개선안 등을 제시하면서 "언론매체와 같이 시장이 이중적으로 이뤄지는 기업에서 세무조사를 보다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 부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를 통한 불공정 거래 감시 행위도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언론사의 판매와 광고 등 제반 영업행위에 있어서의 자율 규제 또한 제대로 의미 있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제1회 안티조선 문화제

대학가에 퍼지는 언론개혁의 외침

안티조선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연세대에서 안티조선문화제가 열렸다. 이번 문화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5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 전국대학 조선일보반대모임(의장=강영준·고려대 사회3, 이하 조반모)을 출범시키고 동시에 처음 기획한 활동이다.

또한 미래 언론인이라 할 수 있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고운정·부대신문 편집국장)과 전국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연석회의(의장=고은상·서강대 신방3)가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기간에는 조선일보 왜곡보도 전시회, 릴레이 강연 및 옥천지역의 '조선반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옥천전투'가 상영되어 안티조선운동의 진행과정과 성과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릴레이 강연은 월간 '달'의 정지환 기자와 한일장신대 김동민(신방과) 교수, 그리고 옥천신문 오한홍 편집국장의 강연

으로 이뤄졌다. 특히 마지막날 조반모 출범식과 락 페스티벌이 열려 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행사 취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오정목(한양대 사회과학부1)군은 "학생들의 이목을 끄는 문화제로 활동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대중적인 활동을 많이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언론개혁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면적인 움직임이라 하여 주목을 받았다. 조반모 강영준 의장은 "대학생들이 '언론개혁'이라는 공동 분모를 갖고 한자리에 모였다"고 말하며 "앞으로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5분 스피치를 하는 등의 활동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진> yearm@dongguk.edu



조선일보반대모임의 강영준 의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토론회 : 한국언론의 시대적 과제

일시: 2001.9.13(목) 장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한국언론재단



지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의 시대적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대학생이 보는 언론개혁의 한계와 방향

'젊은' 행동력으로 언론개혁 이끌어야

올 해 최대의 화두로 '언론개혁'을, 최고의 유행어로 '홍위병'을 꼽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 그리고 탈세언론 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숨가쁘게 이어지면서 언론개혁은 사회를 관통하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언론개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에 본사 사회부는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언론개혁'이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본교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약 3시간에 걸쳐 난상토론회를 벌였다.

△우정현: 얼마전에 있었던 강정구 교수 구속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 정말 문제다'란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됐어. '환경대 방명록' 사건이 언론에 의해 부풀려지면서 결국은 강정구 교수님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잖아. 난 지난 학기 강정구 교수님 수업을 듣고 매주 두 번씩 교수님 얼굴을 봐오던 터라 더욱 놀라웠고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

사주들의 탈세문제가 결정적이었잖아. 그건 사람들이 정말 돈 문제에 예민해서 그런 것이거든.(다같이 웃음) △우정현: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부가 주도했잖아. 운동의 주체가 정부인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일부 언론이 시민단체를 정부의 '홍위병'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틈새도 생기게 된 거지. 앞으로는

△김윤미: 얼마전 몇몇 대학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조선일보 입사 거부선언 한 거 기억나? 평소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에게 조선일보는 선망의 대상이었을 텐데, 조선일보도 그럴 보고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 △우정현: 그건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언론개혁운동이라 말할 수 있겠네. 그럼 또 다른 건 뭐



지난 20일 본사 사회부는 언론개혁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본 '삼겹살 토론회'를 진행했다.

●●
지금의 언론개혁은 탈세문제로 이슈화된 것 열기 식지않도록 꾸준히 운동해야

아래로부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져야 돼. △송윤경: 만약 앞으로 시민단체들의 요구대로 정기간행물법이 개정되더라도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열기가 쏙 수그러들 수도 있거든. 꾸준히 언론개혁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

철판 위에 놓인 삼겹살이 익어가는 것과 비례해서 토론도 열기를 더해갔다. 어느새 이야기의 주제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언론개혁운동으로 옮겨갔다.

△김윤미: 오랜 시간동안 보수 언론들이 쌓아온 힘을 알파산 인쇄. 이 정도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지. △김진성: 언론개혁이 지금처럼 이슈화되는데



"이 길 사람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거 맞아?" 동약로에 대해 학생들이 갖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형관부터 학생회관을 잇는 동약로가 언제부터인가 자동차를 차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가 아니라 완전히 주차장이군." "안 그래도 대형트럭들 때문에 불안한데 길까지 좁아져서야." 요즘 제2도서관 신축 등 학내 곳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 학군단 건물 주차장의 폐쇄와 공사 차량의 통행을 이유로 말이다. 별다른 대책 없이 오늘도 수많은 자동차를 학내로 들고 있는 사이, 동약로를 비롯한 동약 구석구석이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학생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냐?" "무슨! 차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된다고." 학내에 주차가능한 자동차 수는 350대 가량이다.



우정현 기자 김윤미 기자 김진성 수습기자 송윤경 수습기자

기자 사진에 찍혀 인터넷에 얼굴이 뜰 수도 있어.(웃음) △우정현: 그런데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가 안티조선운동처럼 신문비판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게 안타까워. 가장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에 주목하다 보니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볼 기회를 그만큼 제한받게 되거든. 끝같은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진정한 언론 개혁은 매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 진정한 언론개혁은 매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인터넷 언론의 가능성은? ●●

△김진성: 예전에 사람들이 매체에 이끌려 다니는 것은 소위 '오피니언 리더'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칼럼니스트들의 말 한마디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송윤경: 지식인들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조선일보에 기고 한번하려고 안달이 난 지식인들이 많으니 문제가 아닐수 없지. △김윤미: 매체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약간은 막연한 얘기인데. 이걸 인터넷 언론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우정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소통공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기존 매스컴에선 정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사이버 공간은 그렇지 않거든. 또...

우정현이 인터넷 언론 장점 내열은 장황하게 계속됐다. 쌍방향성, 기존 매체보다 신속성 등등.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김윤미가 못참겠다는 듯 중간에 끼어들었다.

△김윤미: 요즘 '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터넷 언론들도 항상 '대안언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잖아. 아직은 어디까지나 '대안'이지만 앞으로 좀더 기대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송윤경: 오마이뉴스 같은 인터넷 언론에선 '시민이 곧 기자'잖아. 이것 역시 파격적인 일이지.

△김윤미: 사실 요즘 기자는 사회의 특권층이라 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지. 평균연봉도 일반 시민의 두 배는 되고, 그런 입장에서 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기사를 얼마나 쓸 수 있을지 의문이야.

△우정현: 맞아. 기자는 출고 배고픈 직업이어야 해. 그래야 고급차 대신 지하철을 타면서 일반 시민들의 삶을 생생히 알 수 있을 테니까.

△김윤미: 기자는 배가 고파야 한다면서 제일 많이 먹는 이유는 뭐지? 지금 네 쪽에만 삼겹살이 없잖아.

△우정현: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음...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정리를 하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대학생, 지식인, 기자를 포함한 모두가 변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핵심이 아닐까.

△김진성: 그래. 언론개혁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명색이 대학언론인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어. 오늘 이야기 했던 거라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

정리=사회부 society@dongguk.edu

동약로 동약 걷기

하지만 학교측이 허가를 내 준 차량의 수는 천 사백 여대. 이는 교직원 천 여명의 주차문제로 인해 일반 이천명의 학생들이 보행권을 침해당하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뜻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걸고싶은 거리 만들기' 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사람 중심의 거리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또한 누구나 나무꾼과 어

우러진 사람의 거리를 원하지, 뻥뻥이 들이선 자동차 길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동약의 거리 재정비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학내주차장 자체하고, 더불어 학교측은 현행 주차허가제를 보완해 보다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흑백논리 위에 쌓은 폭력의 성(城)

목적달성 위한 정치 행위로 시작 ... 무차별적 '뉴테러리즘' 등장

뉴욕 세계무역센터 비행기 충돌 붕괴사고와 미국무부 건물 화재 등이 미국에서 일어나면서 세계는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테러리즘은 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협박으로 특정 목적의 달성을 의도하는 정치적 입장'이다. 이는 흔히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간들이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인 테러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테러리즘은 정치적 무기나 정책으로써 폭력을 사용하자는 주의이고, 테러는 그 수단이 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르다.

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798년 '조직적 폭력의 사용'이라고 정의된 프랑스학술원 사전에서이다. 그러나 테러리즘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은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자

행된 일종의 테러리즘이었으며, 그리스 역사가자 크세노폰은 적국 국민에 대한 심리전의 효과와 중요성을 기술한 바 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 정치'를 의미했던 테러리즘은 그 후 주로 '요인암살'이라는 형태로 정치적 격변기마다 발생했다.

이는 1914년 6월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황태자를 암살한 사건으로 이어져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테러리즘은 본격적으로 기습을 부리기 시작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의 횡포에 약소국들은 직접적인 군사력보다 테러리즘이라는 비공식적인 폭력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한 예로 1967년 중동전쟁에서 패한 아랍인들은 군사력으로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테러리즘을 선택했다. 이에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단체(이하 테러단체)들은 '항공

테러리즘' '인질납치' 등 다양한 방법의 테러를 자행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테러리즘은 세계로 확산돼 국제적 테러리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했다.

80년대는 '국가테러리즘'이 등장, 국가가 테러단체를 배후에서 지원하거나 조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81년부터 93년까지 8천 100여 건을 통틀어 사망자 4천 800명, 부상자 1만 4천명이 발생하는 등 테러리즘이 점차 대형화됐다.

2001년, 이제 우리 앞에 미국이 당한 참사와 함께 '뉴테러리즘'이 나타났다. 뉴테러리스트들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동기를 밝히지 않으며,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의식하지 않는다. 과거 테러단체들이 정치적 주장을 알리고 관찰하려는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선택했다면, 뉴테러리스트들은 단지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테러리즘은 본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고 싶은 연설을 하는 행동'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인해 오늘날 극단적 형태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런 테러리즘은 빠른 시간 내 전세계인들에게 테러리스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알리는 수단으로서는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테러리즘,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다.

무차별한 폭력을 통해 공포를 확대·재생산하는 테러리즘 퇴치에 국제사회의 초점을 맞춰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흑백논리를 넘어서 테러리즘의 만연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거리의 인터넷' 모바일이 온다

이동성·신속성 내세워 IT핵심산업으로 발전 기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도중 급히 확인해야 할 메일이 도착했다. 예전같으면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가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지하철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바야흐로 '거리의 인터넷' 모바일(mobile)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호출기부터 PCS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정보통신기술분야는 무선 단말기가 대중화되면서 기존 음성대화기능 외에 부가서비스 기능 모색을 활발히 진행했다. 그 성과물로 등장한 모바일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일컬으며 사용자가 무선망(wireless network)을 통해 이동중에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총체적 환경과 기술을 말한다. 모바일의 원리는 무선망과의 연결로 기업정보 보안문제와 음악,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방식과, 실시간 운영체제인 Window CE를 기반으로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과 WML(Wireless Markup Language) 모두를 지원하는 ME(Mobile Explorer) 방식이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부수적으로 이동성에 적합한 여러가지 서비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쌍방향 유선 인터넷과 달리 일방적 미디어이다.

이러한 모바일의 장점은 시·공간의 구애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유선 인터넷 2배 가량의 사용인원을 보유해 교환가능한 정보의 양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모리 용량이 적고 스크린의 크기가 작아,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모바일은 무선단말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에 사용되며, 멀티미디어 전용 단말기, 노트북과 같은 고성능 단말기, 통화 품질이 특화된 단말기 등 사용자들의 용도에 맞춘 복합형 단말기들도 개발중이다. 흔히 사용되는 모바일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기반정보서비스', 신속함이 중요시되는 뉴스 속보와 주식투자 서비스, 업무 수행 중 회사의 정보 시스템에 접근해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 수행 결과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이다. 최근에는 모바일상에 이용자

의 이력서를 등록시키면 적당한 취업정보를 보내 주고 합격여부까지 알려주는 '메일링 서비스'가 취업을 앞둔 학생들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보급되고 있다.

앞으로 모바일은 이동성·신속성을 살려 각 분야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IT기술의 핵심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을 예로 들어, 모바일의 사용이 보편화되면 기업들은 모바일을 통해 마케팅전략을 펼칠 것이고, 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시장의 규모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모바일은 기술, 서비스면에서 발전 단계이므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 산업의 중추로 자리잡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모바일이 이동통신의 한 갈래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이제 모바일이 부가가치를 지닌 독립 산업으로 인정받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매김할 길 기대해본다.

<하>
sellyone@dongguk.edu



농산물 시장 개방

지난 94년 종료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정에서 우리는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GATT 본부 앞에서의 시위 및 자살소동을 겪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정에서 포도농가들의 대규모 반대시위를 경험했다. 그러면 공산품 수입은 낮은 관세율로 수입이 가능한데 왜 농산물에 대하여는 그렇게 반대하는가?

한국 농업은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37 헥타이며 거의 80% 가까운 농가가 쌀 생산을 짓고 있는 소규모 가족농 형태의 영농이다. 평균 경지면적이 작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영농인력도 고령의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신기술의 도입과 기계화 작업에 익숙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낮고 관세, 쿼타 등 국경초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 농산물, 특히 곡물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쌀의 예를 들어보자, 중국의 동북삼성(요녕, 길림, 흑룡강성)의 쌀 가격은 한국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국내 쌀 가격은 국경초치뿐만 아니라 수매제도에 의해 매년 일정가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국내의 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그러면 농산물 수출국가들인 Cairns 그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산물이 공산품처럼 완전히 교역을 자유화하여 소비자들의 선택범위를 넓히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후생을 증진시키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농산물시장의 완전한 개방은 생산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오히려 한국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농산물이 완전 교역재가 아닌 비교역적 특성을 지니며 생산에 외부성(externality)이 존재하는 다기능 상품이 때문이다.

국내 농업중 가장 보조를 많이 받고 있는 쌀의 예를 들어보자, 쌀은 한국인의 주식으로 그 생산요소인 논은 아시아 몬순기후지역에 위치하여 7, 8월 집중강우를 맞는 우리 국토를 저수기능을 통하여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한국인이 먹는 장립종 쌀(japonica type, sticky rice)은 전체 생산량의 3-4%만이 교역되기 때문에 세계시장이 엷고 따라서 가격변동성 또한 높다. 이는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적정수준의 국내생산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때 농가는 농가대로 이농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후생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2000년부터 WTO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카타르의 도하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된다면 농업은 그 일부로 출범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기실정 의제로서 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은 쌀에 대하여는 2004년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협상담당자들은 한국 농업의 기능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논리로써 회원국들에게 설득하고 이를 관철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경제가 살고 먹거리 산업, 즐기는 산업으로서 농업 또한 사는 길이다.

통일 지향 민족주의

사이비 민족주의여, 가면을 벗어라

배타적 국수주의 탈피하는 열린 자세 지향해야

영국에서 싹트기 시작한 민족주의는 민중 스스로가 인간의 자유·평등·박애를 외치며 절대군주권력과 귀족의 특권에 대한 프랑스 혁명에 와서 그 절정을 맞이한다. 그리고 유럽의 자본주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봉건적 지역 경제를 해체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성립시켰다.

또한 민족주의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한 서양의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열강의 제국주의로 인해 식민지가 된 제3세계 국가에서는 차츰 저항의식이 발달하면서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식민지 국가들이 보여준 저항적 민족주의는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일어났던 우리민족의 독립운동 정신과도 일맥 상통한다. 한편 1930년대에 나타난 파시즘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의 결합체였다. 개인의 자유·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한 파시즘은 2차 세계 대전까지 초래하게 된다.

히틀러, 과거 히틀러의 나치스가 보여주었던 유대인 학살은 민족주의가 잘못된 형태로 표출된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민족주의는 국가 내부의 동질성과 다른 민족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국가주

의로 발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히틀러는 독일 민족지상주의와 인종론 등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할 수 있었다.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은 인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종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지배할 사명을 지녔고, 반면에 '유대인은 가장 열등하고 해악한 인종'이므로 그들을 격리 또는 절멸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나치즘, 천황제, 개발독재 대중 지배 수단으로 이용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군국주의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당시, 필요한 전쟁물자와 군사들을 동원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주창했다. 천황제를 통해 천황을 신격화하고 신도인 국민들과 식민지 젊은이들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내몰았다. 뿐만 아니라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을 일본의 힘으로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벌인 성스럽고 숭고한 전쟁으로 그리고 있다. 전쟁 후에도 일본은 군국주의

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스쿠니 신사에 전범들의 위패를 안치해 참배한다. 지금까지도 군국주의와 천황지배 이데올로기는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6, 70년대 박정희만큼 효과적인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이용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흔히 경제성장과 개발독재로 대변되는 박정희 정권은 독재와 근대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저항과 불만을 민족의 이름을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조해 왔다. 또한 충무공과 세종대왕 등 민족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기념물을 세워 민족성을 고취시키고 반민족적 정권의 취약성을 극복하려 했다. 우리의 민족주의가 다른 민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열린 민족주의가 아닌 배타적,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지 않는다면 '사이비 민족주의'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반세기 만에 되찾아야 할 반만년 민족

통일 민족주의, 남북화해와 민족성 회복 위한 교두보 역할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 1·2차 세계 대전... 이같이 세계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큰 사건들에는 공통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이념이 있다. 바로 '민족주의'이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이보다 먼저 우리는 '민족'의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스 콘은 민족을 구분하는데 공통의 언어와 혈통, 영토, 관습, 전통, 종교 등을 제시했다. 이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개념과 가장 유사한 정의이다. 특히 언어는 공통된 가치 체계를 형성하게 해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서구 근대사회의 생성 과정에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한 만큼 민족이라는 단어도 근대에 맞추어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민족은 공동체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신분적인 평등이 보장될 때 그것을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족에 대한 개념 규정 자체를 부

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크리스 하먼은 민족을 규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된 혈통과 언어,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응집된 민족의식은 인위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족은 역사가와 문인들을 통해 자연적으로 성장한 언어공동체와 혈통공동체로 날조되었으며 역사적 운

이념들을 낳았을 뿐이다. 이러한 민족주의가 이제는 한반도에서 '통일'이라는 이념과 또 다른 결합을 시도하고자 한다.

7천만 한반도 성원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하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이데올로기인 '통일 민족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한반도는 이미 5천년의 역사를 통해 단일한 혈통, 역사, 언어와 문화를 동질성으로 하는 '민족'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근대에 이르러 외세가 쌓아놓은 분단 장벽에 가로 막혀 하나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북의 대립하는 체제가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화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대립에 앞서 민족의 동질성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한민족이면서도 반세기 동안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은 분명 제1의 과제임에 틀림 없다. 이를 위해 통일 민족주의는 남북화해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교두보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북한의 민족주의는 무엇인가

사람중심의 주체사상 기초한 민족관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의 민족관'에 기초하고 있다. 민족관이란 민족을 대하는 견해와 관점 그리고 민족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와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주체의 민족관이라 할 때에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민족관인 것이다.

그러한 주체의 민족관에서는 민족의 개념을 종래 서구적인 부르조아 민족주의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계급주의적 민족주의와는 달리 제3세계 민족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체의 민족관은 민족의 징표를 있어서도 종래의 경제생활과 지역의 공통성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핏줄과 언어, 지역 등의 공통성을 민족으로 보고 이중에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을 기본 징표로 본다. 따라서 핏줄과 언어가 같으면 사상과 이념, 거주지역이 같지 않아도 하나의 민족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민족관과 민족개념에 기초해서 주체의 민족관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보는 관점이 민족 중심이며 사상과 제도, 지역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의 민족관'에 기초하고 있다. 민족관이란 민족을 대하는 견해와 관점 그리고 민족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와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주체의 민족관이라 할 때에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민족관인 것이다.

그러한 주체의 민족관에서는 민족의 개념을 종래 서구적인 부르조아 민족주의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계급주의적 민족주의와는 달리 제3세계 민족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체의 민족관은 민족의 징표를 있어서도 종래의 경제생활과 지역의 공통성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핏줄과 언어, 지역 등의 공통성을 민족으로 보고 이중에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을 기본 징표로 본다. 따라서 핏줄과 언어가 같으면 사상과 이념, 거주지역이 같지 않아도 하나의 민족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민족관과 민족개념에 기초해서 주체의 민족관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보는 관점이 민족 중심이며 사상과 제도, 지역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적 민족주의라고 한다.

민족제일주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1980년대 처음으로 주장된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그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민족에 대한 존중 및 신뢰와 연결되어야 하며 우리 민족의 우월성만을 내세우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것과 당의 영토를 받은 것,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민족의 우월주의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민족제일주의의 바탕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 우수한 민족전통 그리고 민족성이 바탕이 된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주의는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의 배타성, 우월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김 남 식
통일뉴스 상임고문

통일 민족주의는 이런 거야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근거와 방법에는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각계 각층에서 민족주의를 논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E-mail과 전화 통화 그리고 직접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홍 세 화 - 아웃사이더 편집위원



"배타적이지 않도록 긴장 유지 필요"

한국 상황에서 민족주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면서 또 간단하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낳은 국민국가(Etat-Nation)는 국가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를 함께 담고 있다. 분단과 냉전 상황에서 한국은 국가주의만 강력해졌고 민족주의를 왜곡하고 억압하는 기현상을 보이게 된다. 국가보안법이 그 첨예한 예이다. 이번엔 구속된 강정구 교수도 국가주의에 의한 민족주의 탄압에 희생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분단 국가·민족주의는 우파 정치이념의 바탕인데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실종되고 그 대신에 극우반공주의(반북주의)와 지역주의가 자리잡았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

야 하는 민족주의는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대국들의 팽창적 국가·민족주의에 저항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가 맞물려 있다. 일부 좌파는 민족주의가 우파의 정치이념이라는 이유 등으로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한국 상황이 그런 주장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계 시민론은 평등한 세계지구촌을 가정하고 있는데, 가령 "미국은 왜 군사 패권을 강조하고 또 계속 유지하려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일부 좌파의 민족주의 비판은 '민족주의는 자동적으로 팽창적 국가주의로 발전한다'는 역사 인식에 따른 것인데,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배타적 민족주의(소비니즘)로 나아가지 않도록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다른 민족·국가와 화해평등하고 관용할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이 말은 지금 우리는 민족주의를 부정할 수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민족주의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유 병 문 - 월간 민족21 기자



"민족 의미 발견은 우리의 몫"

한 홍 구 - 성공회대 역사학과 교수



"포용하고 설득하는 작업 우선돼야"

민족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알거나 모르거나를 떠나 분명히 드러나는 '어떤 것'이다. 즉 우리 삶 속에서 되돌림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젊은 세대들

민족주의에 대한 본격적 비판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롯됐다. 최근에는 민족주의가 진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앞서 얘기한 사람들의 주장대로 분명 민족주의는

고급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한 민족이라 외치다가도 지역에 의해 쉽게 분산돼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러한 민족주의가 가지는 '허위성'이 잘 드러난다. 민족주의의 극단은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은 강조되 민족 '반'을 얘기하는 민족주의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민족주의 안에서 여성, 계급, 인종 등의 문제를 포용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민족주의의 과잉과 결여의 모순된 행태를 극복하려면 부차적 이데올로기로써 아닌 그 자체로써 의미를 가지는 내용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손상민 기자
ne08292@dongguk.edu

남과 북이 하나되다

진보적 민족주의자를 통해 본 남한의 민족운동 흐름

좌우 · 남북대립 넘어 민중을 하나로



장준하

항일민족주의자로 활약하던 장준하는 민족분단과정에서 김구와 달리 단독선거·단일정부 노선에는 크게 반발하지 않고 공산주의에는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다. 그는 “남북통일은 민족적 독립과 자유와 평화의 원칙에서 수행돼야 한다. 이 원칙에 위배되는 북한 공산정권의 위장된 평화통일 공세는 단호히 배제돼야 하고 ... (‘사상계’ 1965년 1월호)”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장준하의 통일관은 큰 변화를 갖게 된다.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지. 통일 이상의 이상명령은 없다.

통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민족사의 전진이라면 당연히 모든 가치있는 것들은 그 속에 실현될 것이다.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7.4공동성명을 계기로 그의 통일관은 광복군 출신으로 내면에 잠재해있던 김구의 평화주의·화해주의적 민족통일관과 함께 통일지상주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거듭난다. 한·일협정 체결에서 친일세력의 움직임과 미국이 자국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한·일협정 반대운동과정에서 민중의 역할을 주시하게 된다. 이후 장준하는 7.4공동성명이 사실상 파기된 후에도 민중을 실제로 하는 민족세력의 행성을 기도하다 약사봉에서 의문사 당한다.



김구

백범 김구는 일찍이 동학에 가담하면서 ‘민족 자주사상’과 ‘평등사상’을 접한다. 갑오농민전쟁 때 양반토벌의 최선두에 서지만, 일제의 위협 앞에서 그는 계급의식을 넘어선 조국과 민족 문제에 눈뜨게 된다.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도 김구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법인을 살해하고,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에 가입한다. 또한 애국 계몽 운동을 벌이다, 중국으로 망명해 항일투쟁을 전개하며 빼앗긴 국권과 독립·자결권을 회복하기 위한 저항적 민족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다.

해방 직후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귀국한 김구는 좌우·남북의 대립구도에서 우익과 남한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게 된다. 그러나 그는 미·소에 의한 분단위기를 목격하면서 좌우의 이념을 넘어선 ‘남북화해’를 주창한다. 통일정부수립만이 완전한 자주 독립



을 이루는 길이라는 신념에서였다.

이에 1948년 4월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추진에 반대하며 남북 협상을 위한 평양행을 결심하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 군중에게 연설한다.

“북한의 공산당이 나를 미워하고 스탈린의 대변자들이 나를 시베리아로 끌고 가도 좋다. 북한의 빨갱이들도 김일성도 다 우리들과 같은 조상의 피와 뼈를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 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북의 동포들을 뜨겁게 만나 보아야겠다.” (오소백, ‘인간 김구’)

남북협상 이후 계속된 김구의 평화 통일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1949년 5월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실시된다. 그리고 그해 6월 26일, 김구는 최근 미군방첩대(CIC) 요원으로 밝혀진 안두희에게 암살되면서 민족을 위해 헌신한 74년을 마감한다.



민우환

민우환 박사는 7.4공동성명 이후 한국 신학의 주제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통일운동전선에 뛰어들었다.

문 박사는 1983년 4.19기념 강연에서 “민중의 부활(민중) 없는 민족통일을 말한다는 점에서 남쪽과 북쪽은 똑같다”며 “민중의 부활 곧 민주화로 안이 받쳐지지 않은 민족통일론에는 음침한 함정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통일은 민(民)이 주체가 되는 가운데 관(官)이 함께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989년 북한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두 차례에 걸친 회담을 갖

고 3단계 통일론에 대해 서로 합의한 민우환은 귀국 후 국가보안법으로 생애 다섯 번째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이후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까지도 통일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징역을 살아야 한다”며 “앞으로는 통일의 합법성을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란 생각을 한 문 박사는 1993년 ‘통일맞이 칠천만 거레모임’ 운동을 제창하며 이듬해까지 새로운 통일결정체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김도영 기자
cirus@dongguk.edu

민족이 사라지지 않으면 ‘통일’은 멀어지지 않는다



원래 ‘체제(體制, System)’ 또는 ‘체계(體系, System)’와 ‘구조(構造, Structure)’는 종종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체제와 구조는 내용이 다르다. 물론 ‘구조 없는 체제(체계)’는 존재할 수 없고 구조는 항상 체제(체계)의 구조를 전제한다. 그러나 어떠한 체제(체계)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은 형식적으로 자체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데에 대해서, 구조는 여러 가지 연관 속에서 자기동일적(自己同一)인 것을 단지 반복함으로써 스스로를 견고하게 응결시킨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자기 보존적인 구조도 이를 변화시키는 과정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이 두 가지 개념, 즉 ‘구조’와 ‘과정’을 분석적으로도 깨끗하게 서로 분리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분단 과정과 분단구조를 함께 분석해서 서술할 수 없기에 우리는 대체로 이러한 과정과 구조를 몇 가지 요소 - 예를 들면 분단의 내부적 요인이나 외적인 요소들 - 로 환원해서 기술하고 설명한다. 이때 주로 논의되는 외적인 요소가 분단을 아직도 강요하고 있는 국제적 환경이며 이에 저항하는 주체로서 민족의 정체성이 제기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성명의 첫 번째 항목 ‘자주성’도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주체 설정 통한 통일의 길

우리는 백년 전에도 서세동점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조용해야 할 체제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쓰러진 식민지의 운명을 경험했다. 냉전체제의 종결이라는 국제적 정치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는 역시 분단고착에 있다는 사실은 한 마디로 말해서 분단이라는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오늘날의 남북한 체제가 복잡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를 진화시킬 수 있을까하는 물음을 낳고 있다.

물론 민족분단 상황 속에서도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국제환경에 자주적으로 조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축적해 왔기 때문에 100년 전의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될 수 없다는 낙관

적인 여러 가지 예측과 전망이나 믿음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세계제일의 경제력을 지니게 될 ‘정체대국’이자 ‘경제대국’인 중국과 이와 아시아의 패권을 다투는 일부가 만들어 낼 갈등 구조 속에 한반도가 놓일 것으로 생각한다.

‘구조’나 ‘체제’가 중심이 없는 따라서 다중심적인 세계를 표상하는 비선형적인 사고라고 친다면, 역사적 의식은 역시 주체를 설정하고 이것이 나아가야 할 목적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구조’나 ‘분단체제’는 우리의 통일문제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또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평선처럼 나타나는 일종의 미로의 세계인 데 대해서 분단시대는 통일이라는 이상적인 목적지로 향하는 직선적인 지향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산술적 합산에서 집합적 사고로

사실 탐역사와 같이 ‘주체’를 해체하려는 철학이 풍미하는 오늘날 같은 조건 속에서 ‘민족주체’를 강조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민족국가의 경계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는 ‘지구화’ 과정 중에 유럽에서 18세기 중엽부터 정치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의 중심개념으로 등장한 ‘민족국가’나 ‘민족경제’와 같은 개념이 꼭 통일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어야만 하느냐는 반발도 있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단위가 담고 있는 실존적인 삶의 태두리가 그저 낡은 존재론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세계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지역통합이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럽과는 분명히 다른 동북아의 특이한 정치적 구조를 생각할 때 너무 단순하게 문제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화주의’와 ‘일본주의’가 만나는 길목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것을 우리의 근대역사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체험공간과 기대지평을 같이하는 민족주체가 더 이상 하나의 ‘집단지 단수’가 아니라, 계급과 계층, 심지어는 지역에 따른

이해관계로 심하게 마멸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이나 그렇다. 남북갈등 못지 않게 심각한 남남갈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보다 기본적인 의미를 우선 통일문제를 지금까지처럼 남북을 산술적으로 단순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지니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접합할 수 있다는 사고로 전환하는 데에서 발견하고 있다. 즉 남북이 각각 주장해 왔던 ‘국가연합’이나 ‘연방제의 낮은 단계’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나, 균형을 이룬 하나의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합의는 남북이 각각 지니고 있는 요소를 가운데 우선 서로 접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집합론적 사고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남북이 합의한 ‘자주적’인 통일원칙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북은 민족주체와 외세를 대립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주관철학(主觀哲學)적인 전통 위에 여전히 서 있는 반면에,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해서 보여준 남북의 입장은 오히려 ‘체제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외세는 체제의 결손이 아니라 체제가 주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해석하기 마련이다. 현재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남북 사이에 일고 있는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민족주체 개념에 대해서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한 시각의 차이가 어떻게 해소될지는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 미래의 동북아 질서나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보느냐, 아니면 현재 민족 분단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느냐하는 입장차이는 사실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환경변화 분석과 중심축 유지해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20여년 전에 있었던 논쟁을 떠올리게 된다. 당시 대통령에 출마한 카터가 그의 선거공약의 하나로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다. 이때 국내의 일부 민주화투쟁세력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박정희가 북침해

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해외에서도 반독재운동세력 사이에 논쟁과 갈등이 심했다. 당시 나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반독재투쟁에 있어서 원칙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하게 이를 전술적으로 보려는 태도를 비판했다. 카터가 결국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가 내걸었던 공약을 그 스스로 폐기했다.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결정되었던 것이었지,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찬성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해묵은 논쟁의 기본줄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주위환경의 변화를 예리하게 분석하면서도 자기 중심의 축을 의연히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뉴욕과 워싱턴의 테러사건 이후에 미국에서는 ‘성조기’의 물결이 온 거리를 뒤덮고 있다. ‘민족’이라는 구체적 표상이나 상징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성조기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할 때 ‘태극기’나 ‘인공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일기’를 새로 만들었다. 민족통일이 우리의 과거를 단지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해외에 사는 온 겨레의 미래를 새롭게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세계를 혼자서 지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함께 평화스러운 지구촌을 건설하겠다는 결의도 담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송두울
독일 뮌스터대학 철학과 교수

소나기

미국 보복, 정당인가



△북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 난 전쟁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이번에 미국이 그들을 용서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텐데... 평화의 그 날이 기다려진다!! △보복 이전에 반성을 해야 한다. △미국은 과거 자신들이 팔레스타인과 여러 아랍국가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라. △약소국의 실움을 너희가 어찌 알겠나마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생각하라. △미국은 반성해야 한다. 즉 보복이 상수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감정은 보복을 원하는 것일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등 관련 국가들을 공격하기보다 그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테러에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을 위해 썼으면 한다. △앞으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소련 → 속지말고, 미국 → 믿지말고 일본 → 믿어준다, 조선 → 조심해라. △세계 무역센터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인은 한명도 안죽었다. 음모가 분명하다. △테러는 강도살인, 그로 인해 보복전쟁을 한다면 무력도발!

△테러범이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 보복은 정당하지 않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어차피 터질 거 지금이 기회 아니겠어? △국제법으로 심판하라. △아뇨!! 자기네들이 한 짓을 생각해야지. △확실한 보복대상을 찾고 보복해야!

진정 그들이 테러의 당사자인지? △전쟁은 결사반대. 빈 라덴이 설사 테러를 했다고 해도... 그러면 그의 돈을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피를 부르는 악순환. 갈등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지.

△미국의 복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미국이 말하는 복수는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는 허튼 수작에 불과하다. △어차피 결론은 '응징' 아닌가.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하니까. △하긴 자존심도 상할테지. 하지만 그자 자존심에 힘없는 국민들은 어쩌려고~



동약광장

목격담

축하합니다

△토목환경 94 황용운 결혼축하해. -94일동 △상현아 큰애(하나 뿐이지만...) 둘 축하한다!! △영빈아! 벌써 20살이나? 생일 축하한다. 누나 축하지? -롤 △K! 너 사진 잘 나왔더라. 축하해! -현 △텀~ 소개팅 하게 된 거 축하한다. 꼭 성사되길... -너의 수호천사 △성미, 바비리의 짝꿍을 축하축하~ △힘을 되찾은 친구야, 축하해~ △재문 선배 복학 축하해요. △은희씨 지났지만 생일 축하해요. -D.Y △원주야, 회장된 거 축하한다. 우리끼리 밥이라도 먹자. 물론 밥값은 내가 알지? △이상지 상장구 된 거 축하해~ 밥 싸라... -수경 △교수님, CF 모델 된 거 축하드려요. 하하하 좋은 광고 ^^

수고하셨습니다

△MenoWe 봉사단 여러분!! 봉사단원 모집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니 △자과연 여러분 청림계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동아리로 이

팔길 바라며... -잘생긴 선배 △범용대 총회 준비위원장 법대의 꽃 단 이!! 수고하셨습니다. △선주야! 방송한다고 힘들지? 늦었지만 오디션 통과하느라 수고했다. -해진 언니 △6개월 전 우리 '뽀대' 아이들~ 잘 지내고 있지?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당. -윤경 △정범야! 고생 많다. 앞으로 더 수고! ㅍ △약과! 식당 아르바이트하느라 고생이 많다. 수고해라. △사과부 식구들, 능금계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언니, 밤마다 자격증 공부한다고 고생했어. 꼭 붙을거야 파이팅~ △문장 실습실 임박식 준비하신 선배님과 동기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문창이

열심히합시다

△국교과 4학년! 가을에 현혹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98왕 △생명과 분야야! 모두들 공부 열심히 하고 함께 2002년 월드컵 보자! -won 95교육 △MenoWe 봉사단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14기 범청학련 통선대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요! △교씨. 이번에도 4.0 넘어라. -우 △지연언니! 휴학했어도 한달에 2번 이상 연락하기, 잊지 않았지? 열심히 살고, 알

바비 벌면 거하게 한 톱 내어해. -은영 △성진아, 복학해서 맨날 도서관에서 사는 구나 열심히 해. △승욱선배, 군 생활 열심히 하세요. △준태야, 지겹더라도 수업 열심히 들어라. 우리 학교에서 함 뭉치자. -생일친구

그리고...

△국선도 회원모집. △롤~ 건강해라. -길동주민 △리나! 추석연휴 보내고 올 때까지 동약을 잘 지키렴. -A.T △강경구 교수님! 빨리 돌아오세요. -사랑하는 제자 △14기 통선대 유재욱 동국대장님, 잘 계신지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Y △음식이얼 썬지? 고마워요. -W △재승오빠! 저 나름대로 써포트 잘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이야~드디어 고향 간다. 모두 모두 잘 다녀오길. △사랑하는 Juliet 21th 가을에는 모두들 열구리 시리지 않도록! -Juliet 21th 중 won △송선생님, 여행 준비에 바쁘실 텐데 좋은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양 △영란! 허리는 곧 생명, 조심해라. △경야누나! 벌린 돈은 조만간 멋지게 갚을게요. △뉴미디어와 광고 4조, 우리 모두 A+ 받아오~

온방길

축하합니다

△호령명영 4 이상민,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자친구 생긴 것을 축하합니다. me to 권 영일. △추카! 상화 오빠야~ 생일추카해~! 짹 짹 M.B.A 5기 가장 핫팅! Good luck to you!! -당신을 사모하는 여편 여인들이 △민희야! Happy Birthday To You ♡한다. △00학년 자연과학대 조경학과 일원아! 생일 축하해! △화학과 남승우. 경희와 1년 추가추카. △명주언니 생일 축하해요! -天符印일동 △민희야, 참호야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해. 싸랑한다~ -식구들 △나카타! 휴학을 축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겨울동상! 시험 치느라 수고하셨어요.(떡, 쟁기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해요.) 이제 시작인 거 아니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위해! -실장, 양희 ^^ △주명아, 말만 하지 말고 좀 뛰어다녀라. 그리고 계속 수고해라. △창호야~ 지난주 고생하고 수고했다. 많

오늘의 글

김태광 (사범대 국교4)

귀향사업 벌이는 '정치수배자'의 추석맞이

자유로이 고향 찾을 그 날 기다리며

동약 내 추석맞이가 한창이다. 고향 갈 생각, 명절 보낼 마음에 모두 들떠 있지만, 이와는 사뭇 다르게 한 가위를 맞는 이가 있다. "벌써 추석이네요. 명절은 참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답답하게 이야기를 시작한 김태광(국교4) 군은 벌써 2년째 고향인 북포에 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던 그는 한총련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그 해 5월 수배대상이 되었고, 그 후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다. 더욱이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귀향사업과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준비하는 올해, 그는 작년과 달리 더욱 심란하다. "귀향사업을 준비하면서 고향 가는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왠지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답답하더군요. 부모님과 고향친구들 생각이 많이 났죠." 다른 무엇보다 부모님을 뵈 수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그는 그래도 명절마다 부모님들 선물 보내는 일은 잊지 않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수배생활로 몸이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음만은 편하게 가지려고 하죠"라며 웃어 보이는 그는 단지 사람이 좋아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 시작한 총학생회 일하기에 후회는 절대 없다고 새삼 강조한다. 또한 자신과 같은 정치수배자로 생활하지만 서로를 위해 주는 동료들이 있기에 혼자 보낼 명절의 외로움을 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정치수배자이기 때문에 타지에 서조차 불안하게 명절을 보내야 하는 현실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정치수배자라 낙인찍힌 후로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김태광 군. 머지않아, 그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정치수배자'로 만든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자유로이 고향을 찾아가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라>

hviolet@dongguk.edu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구체적 대안 제시 부족

문화면의 '합작'을 다룬 기사는 국가장벽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는 지금의 개방된 문화 교류현상을 시의 적절하게 잘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합작'뿐 아니라 일본 문화개방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문화가 넘쳐나는 혼란된 문화 속에서 우리문화의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기사의 대부분은 현재 제작중인 합작영화나 뮤지컬의 예가 많아 정작 중요한 문제의 논점을 잘 살려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문화의 자주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번 문화를 다룰 때마다 등장하는 식상한 표현일 뿐, 구체적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뜬구름 잡기 식의 단편적 해결책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인 대안과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했다면 균형 있는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조현정 (경영대 회계3)



(제1326호 9월 17일자)

독자위한 올바른 해석 요망

1면에 실린 일본 사포로학원대학 연수생 인터뷰는 기사라고 하기보다는 인터뷰를 단지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신문기사가 함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에서 나아가 객관적인 판단과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인터뷰 내용은 서로의 문화와 한·일간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것인데도 그 제목은 학생교류로 양국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로 남기면서 시원치 않은 마무리를 했다.

인터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해석 또한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더욱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은희 (법정대1)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press 니우누리 : 동대신문

학교앞 신호등 설치 필요 재한다. 항상 조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듯 하다. 윤미선 (인문대 국문3)

졸업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우리 자연을 보호하여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글귀는 본교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제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나와 동기들 모두 근 100년 역사의 동국대학교를 잘 보전하고 아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단 보전만이 아니라 본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불편함 역시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없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네 자치 공간 확보!'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응책 없이 넘어가는 학교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만한 의지가 결여된 듯 보이는 학생회와의 줄다리기에 애꿎은 학생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일례로 매 학기 시작과 동시에 수많은 교내 행사가 동국관과 회화관 사이에서, 아니면 중앙 도서관 앞에서 열린다. 방음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동국관에서 주로 강의를 듣다보니 그때마다 소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은 이랑곳하지 않고 마이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부르는 학생들과 '21세기 선진대학'을 표방하지만 도서관과 강의실에 방음장치와 방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 우리는 수업 받을 권리를 잃어가고 있다.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닫고 땀을 흘리며 열강 하시는 교수님의 입이 붓어 입처럼 방긋 방긋한 것만을 짜증 섞인 눈으로 바라보다가 급기야는 자리를 뜨는 친구들을 보면 아직 내지 못한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매만지곤 한다. 서용식 (사과대 정치외교4)

(한)의대생, 고시원 자격 제한

최근 교내 계산관에 (한)의대생(이하 의대생)의 고시반 일반 자격제한에 관한 불만의 글이 올라 왔다. 이에 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과 현 고시반의 분위기를 전하고자 한다. 의대생들의 고시반 입반자격제를 제한한 시기는 지난해부터인 것으로 안다. 그러한 자격제한이 있는 후에도 고시반에는 한의대생 1명과 의대생 1명이 입실해 있었다. 두 학생은 고시반 지도교수 면담 후 고시에 분명히 뜻을 두었음을 확인 받고 입실했다. 이렇듯 의대생들에게도 고시반 입실의 길이 분명히 열려 있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격박탈이 아닌 자격제한이다. 그렇다면 왜 의대생들에게 고시반 입

실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먼저 의대생들이 정말 순수하게 고시 공부에 뜻을 두고 고시반에 들어왔나?는 의문을 던져본다. 아쉽게도 입반한 의대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둘째 의대생들이 고시반 일반 시험을 치르면 대개 성적이 좋았다. (우리학교 특성상) 자연 고시반에서 타 단체 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생겼다.

본교에도 고시 준비생들이 꽤 있으나 본격적인 공부는 대개 졸업 후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재학 중 고시반에 들어온다면 일찍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고시반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교 학생들이 서울 소재 유수 대학에 비해 실력도 부족하고 공부 여건이 열악함을 감안할 때 고시반은 고시 준비생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고시반 지도교수와 관계자에 의해 의대생들의 일반 자격이 제한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헌덕 (법정대 법4)

기본적인 식사예절 지켜야

방학동안 상록원에서 배식 아르바이트를 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대다수 동국인들은 참 예의바르지만 소수 학생들로 인해 전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들은 반성을 해야한다.

배식을 하는 아줌마들과 조리사 아저씨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담아 주려고 한다. 학생집안이나 또한 오히려 남기려는 장사가 아니니 많이 퍼주려고 했다. 남자들에게 비해 여자들은 밥이나 반찬을 많이 남기는 게 사실이라 처음부터 조금 주는 것이나 완전히 비운 채 그릇을 가져가면 전혀 싫은 소리하지 않고 더 준다.

하지만 늘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그들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싫어한다. 배식 창구에서 셀프로 갖다먹기 귀찮아 배식 받는 길에 기분반찬 더 달라고 하는 사람, 닭꼬치나 돈까스 등 연연히 양이 정해져 있는데 한 개씩 더 요구하며 생떼를 쓰는 사람, 설거지 않은 생각지 않고 반찬 그릇을 두 개씩 가져가는 사람, 나이가 좀 있다고 반말로 조리사에게 요구하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을 안 들어주었다고 나이 많은 아줌마들에게 욕하고 가는 사람, 많은 양을 요구해 더 주면 한 그릇으로 돌아 나눠 먹는 여학생 등에 의법절 모르는, 대학생이라고 부르기도 참피한 사람들이 있다.

좋은 인상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매 끼 식사를 즐겁고 배부르며 맛있게 할 수 있다. 식당은 우리가 조원인 생활이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자.

양시내 (법과대 법4)

이 힘들었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힘내라. 화이팅!! △DKBS 방송제 한다고 수고했어! 못 봐서 미안하고 다음 기회엔 꼭 갈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마. 알았지? △지난 1주간 너무나 수고했다. 정말 힘든 기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잘 할 수 있겠지? 이 영아는 믿어불란다.

열심히합시다

△정기공연 준비하느라 힘들지? 좀만 참고 열심히 하자. 그럼 멋진 결실 얻을꺼야. 그날이 오면~ 쟁. △종영아, 군대가서도 열심히 해~ ^^ 면회 자주갈게. -친구 준혁 △아침 수업 열심히 듣자. 피곤해도 내일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의 현실을 도파하지 말자. -대신유니

그리고...

△황정희! 잘 살고 있나? 오빠랑만 짝나게 놀지마~ 얼굴보기가 왜 그리 힘드냐. 까먹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했다. 힘내자! 아자! 인생은 깡이란다. -arj77 △혜진아! 아저씨랑 잘해봐! 알았지? -큰언니 △유인선배! 이제는 술 그만 마시고 꼬박

꼬박 집에 들어가세요. △정말 밤샌다는 건 힘든 일이다. 사람은 제 시간에 자야 한다. △한울회 L.T가요, 잘 다녀옵시다. 한울인 여러분! △똥년 탈캉크 노는 계집 업 우리 대학원 합격 그날까지 힘내자. -우~ R △Action 우리 가족이 있어 난 행복합니다. -액션의 수호천사

△성희야, 공부 좀 해. △철학과 학생회자보 정말 유치하다. 철학 전공 맞나? 앞으로 옳은 얘기만 하길... -정의의 사도

△한외과1 1 순욱오빠 화이팅! △나, 오늘 너무나 예뻐!!(가끔씩 상기 시켜 줘야함) -크리스탈^^

△인문대 멋쟁이! 솔로탈출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후회하실 겁니다. △이밥순 바보. 이밥순 아저 점심 두 번 묵었다. 이밥순♡와단구

△왜 이리 시는 게 힘든건지. 왜 이리 내 맘을 몰라주는 건지.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보들... △여학생 휴게실이 생긴다는데, 학생회실 출신이라고 뭐가 문제되나?

△이번 겨울 실습 잘 할 수 있었지? 약간은 걱정되긴 하지만 짹있을 것 같애. △총여학생회 자보 이해야 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여학생을 위한 길이 뭘지 알기 바란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왜일까? -41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히딩크, 과연 이대로 좋은가

찬성

반대

최근 체코와의 원정경기에서 참패를 하고 나이지리아와의 두차례에 걸친 평가전에서도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모두들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우호적이던 언론도 기대했다는 듯 저마다 비난을 퍼 부으며 이른바 히딩크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 같다.

비록 우리 대표팀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보였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세계 10위권 내의 강팀과 원정 경기를 했던 적은 거의 없다. 특히, 타국 프로무대에서 활약하는 주전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치러진 경기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경기는 경합만으로 값진 소득일 것이다.

우리 대표팀 역사상 외국인 지도자는 구 소련의 아나톨리 비쇼베츠 감독이 94 아시안게임에 위해 한시적으로 대표팀을 맡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대표팀 전담감독을 외국인에게 넘

긴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이 히딩크의 4-4-2 축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가 낮고,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며 감독과 선수들간의 교류가 원만하지 못한 것이 부진의 원인이 된 것 같다. 히딩크 감독은 과거 자신이 맡았던 팀을 4연속 리그 챔피언으로 끌어올렸고 88년에는 네덜란드리그와 FA컵, 유럽 챔피언스리그 등 3개 타이틀을 동시에 석권한 세계적인 지도자로 통한다.

지금은 유럽강국의 선수들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실력차이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아야 할 때다. 히딩크 감독이 아무리 세계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단번에 한국축구의 토양 자체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강팀들의 내력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우리 대표팀을 맡게 된 이상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현준봉 (문과대 일문4)

'5:0 = 히딩크스코어' 우리 대표팀이 유럽국가들에게 5점 차의 0매를 당한 후 떠도는 유행어이다. 과연 히딩크 감독은 이대로 좋은가? '유럽진크스 탈출 실패' '흔들리는 히딩크코' 언론의 보도에서 엿볼 수 있듯이 히딩크호는 관망은 게 아니었다. 2002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서 최근의 결과들은 걱정과 우려만을 더하게 한다.

짖은 외국환과 휴가 연장신청, 마지못해 귀국하는 듯한 행동은 국가 대표팀 사령탑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은 분명 아니었다. 이는 휴가도 반납한 채 선수선발과 훈련에 열중하는 일본의 외국인 감독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과연 그는 무슨 생각으로 대표팀을 맡았는가.

외국인 감독을 들여올 때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유럽 정상급의 선진축구 전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포메이션의 짚은 교체나 무성의한 선수 선발 모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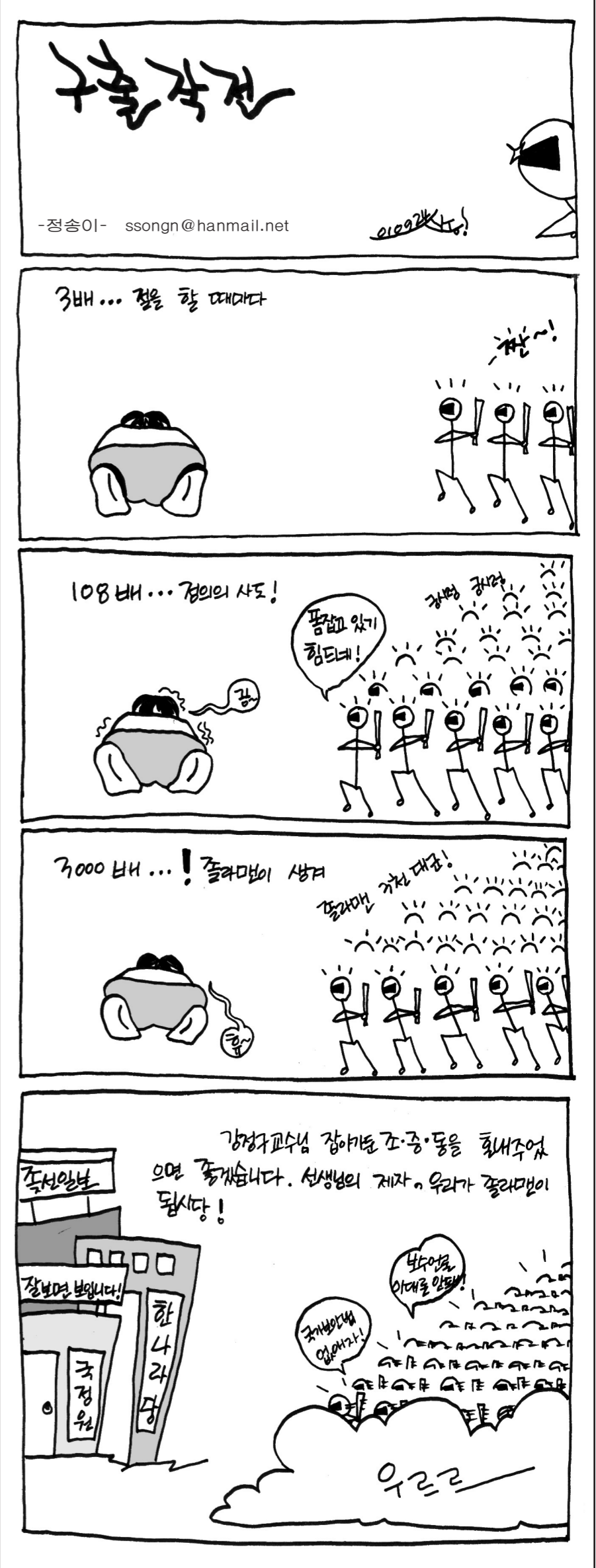
한국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불성실한 지도자의 모습은 버려야 한다.

그런 기대를 저버리기에 충분했다. 또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베스트 11조차 정하지 못한 채 '숨은 진주 찾기'라는 위험한 시도까지 계속하고 있다. 한 예로 히딩크 감독의 부임 당시 선수들의 포지션이 대폭 바뀐 후 현재 정상 포지션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히딩크 감독의 시행착오를 말해준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외국인 감독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서 '너무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축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는 판단은 자칫 독선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그가 계속해서 명성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면 검증된 국내 감독으로 가는 것이 안방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정재운 (법과대 법4)



특별기고 - 조선시대 어느 사관에게 띄우는 편지

“사관들이 실록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생생한 역사 현장을 입증하는 실록, 사관들의 정신이 빚어낸 결과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

예전에는 학교 가는 것을 왜 '등교'라고 하는 지 몰랐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등교'라는 말만큼 이에 어울리는 말도 없었다.

매일 학교를 오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힘들지 않게 등교하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겠다.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라는 등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젠 진짜 믿을 만한 방법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그재그로 걷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힘든 언덕을 밟아서 걷게 되므로 그리 힘들지도 않고, 또 보이는 풍경의 변화가 재미있어 힘든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

내 소견일 뿐이지만 약을 먹었다는 안도감만으로 병을 낫게 하는 '플라시보효과'를 생각할 때 어쩌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본다. 혹시 걷는 거리가 더 길어져 두 배로 힘들 거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의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나는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뚜렷한 마음만 있다면 못 해낼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혹시 가을을 타거나 외로운 분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버리면 된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등교한다면 가벼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

박다미 (경영대 회계2)

안녕하세요. 저는 남산 아래 세워진 동국대학교 학림관에서 역사를 배우고 있는 역사학도입니다. 제가 시간강사를 뛰어넘어 이렇게 붓을 든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알았다는 교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조선왕조실록이 CD라는 저장매체로 만들어져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과제를 위해서 국사관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무 교수님의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라는 책을 읽으며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실록은 왕이 죽은 직후 다음 왕에 의해 전왕의 사적을 연, 월, 일 순서로 기록한 역사서라고 써여져 있네요. 그렇다면 실록은 그 시대의 여러 사건들이 사관의 붓끝으로 기록되었다는 소리군요.

사건의 당사자가 생존하고 숨겨진 자료도 현존할지 모를 상황에서 바로 현재의 역사를 쓴다는 것! 만약 지금도 실록이 편찬되고 있다면 이름을 밝혀야만 하는 '사관'이란 직책이 아무리 승진코스였다

한들, 과연 사람들은 사관이 되려고 할지 의문이 생기네요.

조선왕조실록 CD를 보니 사관실명제에 관해 아뢰는 글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역사를 올바르게 쓰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깨끗하게 썼던 조선의 수많은 사관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고 싶습니다. 사관들의 춘추필법의 정신이 조선왕조실록을 살아있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실록은 현대사를 쓴다는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되도록 사실적으로 기록하였지요. 또한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답게 관리들의 세세한 잘못도 엄중히 비판했지요. 이것은 물론 왕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이러한 세세한 기록들의 집합소 실록을 읽기 위해서는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라' 라고 해요.

이 말 정말 가슴에 와 닿죠? 역사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저 죽어버린 걸걸데기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생물체로서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오라이다라고 하며 역사에 기발한 상상을 덧붙여 거침없이 글로 쓰는 시모노 나미미 여사처럼,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 살 냄새를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종일 왕의 곁에서 왕의 말은 토씨 하나도 빠뜨림 없이 기록해야 하고, 집에 와서도 기록을 해야하는 사관이라도 분명 지금의 우리와 같이, 주막에 모여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기울였을 텐데, 아, 시간원은 왕에게 간언을 한다는 특별한 직책으로 말미암아 별일이 없을 때는 하루 종일 술을 먹는 관서로 소문이 나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러했나요?

저는 여러 책을 뒤적이며 심장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조사해보려고 해요. 과거합격이 행복시작이 아니라 고난시작이라는 데, 요즘의 '신고식'처럼 막걸리에 이것저것 섞어서 단숨에 들이키는 것인가요?

조선에서는 종이 귀하여 붓으로 편지를 쓰다가 칸이 부족하면 행간을 이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끼어 쓰던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글을 쓴 본인까지도 몰라본다면가요?

20세기에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 또 쓸게요.

강덕주 (사범대 역교2)

2001 한가위 한마당 (고향 가는 길)

● 한가위 한마당 - 9월 27일 중앙도서관 앞

1. 동약잔치 하나. 이른 10시~4시 <보물 찾기 대회>
 - 팔정도 주변에 숨겨진 100개의 보물을 찾시고 오후 4시에 상품으로 교환하세요!
 2. 동약잔치 두울. 늦은 12시 <제기치기 대회>
 - 누가누가 오래오래 멋지고 신나게 제기를 차는지 한번 겨루어 보자구요!
 3. 동약잔치 셋. 늦은 1시 <세발 자전거 타기 대회>
 - 남녀노소 불문하고 긴다리 짚어서 달려봐요! 다리가 짧은 사람이 조금은 유리하겠죠?
 4. 동약잔치 넷. 늦은 2시 <떡진치 한마당>
 - 여러가지 종류의 떡과 우리 음료를 나누어 드립니다. (동국관은 늦은 5시 30분부터)
 5. 동약잔치 다섯. 늦은 3시 <줄다리기 겨루기 대회>
 - 여자 10명과 남자 10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결성해서 힘차게 당기면 식권 100장이 와르르~
- * 이외에도 **상설놀이판**(널뛰기, 제기차기, 투호, 팽이들리기...)과 **우리 물품장터**(우리토, 이복술, 우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동약 학우들 모두 맘껏 즐기다 가세요.
- * 모든 경기의 신청은 당일 오후 12시까지 학생복지위원회로 하시면 됩니다. (2260-3681)

● 한가위 "고향 가는 길" - 9월 28일 출발 (도시락 / 기념품 제공)

<귀향버스 타기>

1. 9월 28일 이른 10시에 대운동장에서 출발합니다.
2. 노선은 아래와 같으며 노선에 관계없이 5,000원이면 우리의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3. 노선 : <직통> 부산 / 울산 / 마산 / 진주 / 대구 / 포항 / 광주 / 전주 <경유> 충주-문경-상주, 청주-대전-논산, 당진-서산-예산-홍성-보령-서천, 익산-군산 (전주)-정읍-고창, (전주)-임실-남원, 창원-진해, 창원-밀양-진해, 거창-진주-사천, 원주-강릉-동해-삼척, 제천-영주-안동, 나주-무안-목포, 순천-여수, 순천-별교-고흥, 영동-김천-구미, 영천-포항, 경주-울산

<귀향비행기 타기 (제주도행)>

1. 9월 28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10월 4일 제주도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2. 왕복노선으로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25% 할인된 가격으로 124,500원입니다.

서울캠 생활협동조합/학생복지위원회

송편배우기 & 사랑나누기

추석을 맞아 송편 빚기를 익히며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정성껏 만든 송편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본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하여 '세계의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국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 시 : 2001년 9월 27일(목) 10:00 ~ 16:00
- 장 소 : 계산관 1층(사범대 옆)
- 주 관 : 여학생실(문의 : 2260~3056)
- 후 원 : 참가자봉사단
- 프로그램

시 간	순 서	내 용
10:00 ~ 10:10	• 행사개회 • 인사말 • 행사진행안내	
10:10 ~ 10:40	• 추석의 의미 • 떡에 관한 설명 및 시연	송편빚기 시연 이후부터는 각자 송편을 빚고 떡요리 연구가는 볼거리가 되는 떡을 만들어 보여줌.
10:40 ~ 15:30	• 외국인 학생과 함께 송편빚기	외국인 학생들이 말하는 세계의 추석
15:30 ~ 16:00	• 예쁘고 독창적인 송편 시상 • 송편전달 • 폐회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을 도시락에 담아 한가위를 홀로 보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해드립니다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캠 여학생실

취업특강

2001학년도 하반기 취업예정자들의 장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취업 활성화와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2001학년도 하반기 취업특강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 제 : 2001 하반기 채용동향과 전망
 - ▶ 면접전략,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 ▶ 2001년 채용시장 분석과 입사 전략 (취업성공 포인트)
 - ▶ 여대생 취업전략
 - ▶ 2001년 하반기 취업전망 및 자격증 가이드
 - ▶ 여학생을 위한 취업 준비 (직업의 선택과 직업윤리)

2. 강 사 : (주)리쿠르트정보통신 대표 이정주
3. 일 시 : 2001. 10. 10(수) 14:00~16:00
4. 장 소 : 본관 강강당
5. 대 상 :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6. 문 의 : 본관 3층 취업지원팀 (2260-3054~5)
7. 특강자료집 및 기념품 배부

서울캠 학생처

봉사, 자기 향상의 길



김용기
시범대
수학교육과 교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어렵다. 인간은 사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 서로 돕고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와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데, 이것이 자원 봉사의 출발이다.

자원 봉사 활동은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하는 정신, 이른바 자비정신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 즉 자발적 의지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 어느 사회화자는 자원 봉사에 대하여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 혹은 '시민의 책임'이라고 했는가 하면, 민주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가' 또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가진 최선의 희망'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올해는 세계 자원 봉사자의 해(IVY 2001)로 우리

나라에서는 모 일간지 주최로 전국 자원 봉사 대축제를 10월중에 개최 예정이고, 본교는 몇년전에 참가한 봉사단을 발족시켜 점점 그 규모가 확대되어 상당히 많은 동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참여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주에는 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들을 초청하여 봉사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자원 봉사를 하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발성, 협동정신, 책임감들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아울러 매사에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자원 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 성취와 보람과 마음의 평화

달하나 천강에

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멋진 생각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더욱 좋다. 따라서 자원 봉사 활동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중국에 가서는 자기를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자원 봉사 활동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고, 자기 도취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쫓겨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지 모르나 마음의 빈곤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속에서 봉사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정과 사랑을 행하는 자원 봉사자들로부터 그래도 우리 인류의 희망을 느낀다.

'아시안 블루' 그 서늘한 푸르름의 묵념



호리카와 히로미치 감독의 영화 '아시안 블루'의 시사회장은 상업성 짙은 여타 영화의 시사회장에서 느끼지는 시골벽적이고 분주한 모습과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담담한 분위기였다. 시사회장이 그리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빈자리가 많았지만 상영장을 찾은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었다.

1995년, 종전 50년을 맞은 교토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시작하는 영화는 현재로부터 과거 일본이 저지른 '우키시마마루 사건'의 진상을 밝혀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에서 조선인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마루가 교토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을 영화로 제작한 것이다.

전쟁 당시 징병을 피해 일제 치하에서 강제징용당한 조선인들과 함께 강제노역을 한 '다카자와 히쿠문'의 자취를 찾아가며 당시의 끔찍한 현실을 재현하고, 일본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영화 '아시안 블루'. 영화는 시종일관 조용하지만 힘있게 이야기한다. 일본은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잊지 말아야 하며, 반성해야 한다고.

영화는 그 내용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를 실천하듯 일본의 과거를 잊지 않고 반성하는 많은 일본인들의 정성이 모여 제작됐다. 일본 교토와 마이즈루, 시모키다 등 3개 지방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제작비를 보태고, 시민들이 무보수로 촬영에 임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우키시마마루 사건'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영화의 제작자 이토 마사아키가 지난 95년 '아시안 블루'를 일본에서 개봉하면서 한국에서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우리 나라 영화계는 '아시안 블루'가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지난 8월말, '우키시마마루 사건'에 대해 일본 교토법원이 생존자들의 피해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심어린 시선이 늘어났다. 게다가 때마침 광주 시민연대가 '아시안 블루'를 수입, 배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우키시마마루 사건'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일주일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트선재센터를 찾아 '아시안 블루'를 접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화 감상소감 게시판의 한 관객의 글에 공감할 것이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만을 선호해, 꼭 봐야 할 영화를 의미하는 우리 모습이 상영장 곳곳에 비어있는 자리들로 대변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아시안 블루'는 분명 그리 유명하지도, 특별히 관객의 시선을 잡지도 않는 영화다. 하지만, 이 영화를 쉽게 넘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표은영 기자
psik20@dongguk.edu

광고보기, 이제는 바꾸어? 바꾸어!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안목 갖춰야

얼마 전 '이영애의 하루'라는 유머가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 내용인즉, 웅진코웨이 아줌마를 기다려 정수기 필터를 교환하고, 소풍 때는 LG카드를 적립 받는 등 텔레비트 이영애의 하루를 그녀가 출연한 총 8개의 광고에 빚낸 것이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등장하는 8개의 광고가 순서도 바뀌지 않고 차례차례 떠오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광고이자, 광고의 힘이다.

광고를 흔히 '15초의 예술'이라 한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있다. 크리에이티브한 영상과 메시지의 예술성에 관한 것과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고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는 것이 사실이다. 근래 들어 '물로 보지마', '나는 스무살이다'와 같은 광고카피가 유행하고 유명 연예인의 대거투입과 함께, 광고가 새로운 문화창조의 매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광고가 엄연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나 광고제작자가 만든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의 의미를 재고해야 하는 것이다.

안티조선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지난해 초, 조선일보가 '할 말은 하는 신문', '신문, 그 이상의 신문'이란 카피를 내세워 기업광고를 펼쳤다. 이는 조선일보가 광고를 이용해 안티조선운동에 항의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보다 확고한 조선일보의 기업 이미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맥도날드의 광고 역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에 열광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 이러한 광고전략이 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표상으로 불리는 맥도날드의 부정적 인식을 무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의견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렇듯 광고는 광고주나 광고제작자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둔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소비자인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썸시페이스에서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안티 광고전'도 우리가 그동안 광고를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보았는가를 일깨워준다. '안티 광고전'은 광고심에 걸려 없어지고 수정된 작품들과 고무신에 나이키 로고를 그려 넣은 것처럼 생각의 틀을 깨는 작품을 선보여 올바른 광고보기를 제안한다. 광고를 광고주나 제작자의 의도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따라, 경험에 따라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시회는 제작자들에게도 아이디어의 다름이 아니라 기존의 것보다 나은 가치 있는 광고를 만들라고 역설한다.

이렇듯 광고가 진정 문화창출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광고를 소비자와 제작자가 함께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광고 제작자들은 올바른 상업성을 지향하는 광고를 만들고, 소비자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비판적인 광고보기의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광고가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자은소식

남산골 한마당

서울캠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남산골 한마당'을 연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길놀이로 시작으로 집체극부터 전통판굿, 락 공연까지 다채롭게 이어질 예정이다.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미래내골의 흥겨운 한마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동국관 앞 통일광장에서. 문의 2260-3672

서양화전공 졸업작품전

경주캠 미술학부가 '제20회 서양화전공 졸업작품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예비화가 16명의 작품들이 소개되며, 일상을 4절지 위에 표현한 이색작품도 만나 볼 수 있다. 오는 12시 백상탑 앞 셔틀버스에서 특색있는 오픈기념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24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문화회관 중전시실에서. 문의 018-765-6464(이동열)

국악과 정기연주회

경주캠 국악과가 일곱 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첫 무대에서는 거문고 제주, 불교무용, 타악 합주 등을 선보이고, 이어 웅장한 국악관현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국악과 학생들이 전하는 우리 소리의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문의 (054)770-2509

바라밀 라이브 콘서트

경주캠 락 그룹 사운드 바라밀이 스물 한 번째 '라이브 콘서트'를 연다.

총 4부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윤도현 밴드의 '깨어나'를 비롯해 나탈리의 'Tom'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바라밀만의 색깔을 엿볼 수 있는 열정적인 무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오는 26일 오후 8시, 원효관 소강당 1에서. 문의 (054)770-2781

문화기행

어픈 역사의 흔적, 정동길에 캐나다 대사관이 들어서려 합니다. 지난 기억을 거울삼아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정동길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흥화문 - 경희궁 정문인 흥화문. 한때 일제시기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한 절인 박문사의 정문으로 옮겨져 나가는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정동교회(사적 256호) - 1898년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 건물.



▲류관소 역사 빨래터 - 이화학당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류관소 역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빨래터 우물가.

▲중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53호) -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침울한 역사의 장소.



▲중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53호) -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침울한 역사의 장소.

◀구 러시아 공사관(사적 253호) - 고종이 1896년 2월11일부터 약 1년간 피신해 있던 이관파천의 현장.

매체비평

TV 편

동양극장

“TV 스스로 정체성 찾아 예술의 길을 걷다”



브라운관을 통해 한국 연극사의 초창기를 정리한 KBS 2TV 주말드라마 '동양극장'.

요란스러운 광고와 함께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KBS 2TV의 특별기획 드라마 '동양극장'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비교적 시청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문을 닫았다.

'왕건', '여인천하', '명성황후' 등 사극이 효자종목으로 떠오르고, '수호천사', '그 여자네 집'과 같은 멜로물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극장'은 사극적 요소와 멜로드라마의 요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라는 정치적 요소까지 가세하면서 이 작품은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다양한 재미를 제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사극의 무거움과 멜로드라마의 가벼움을 효과적으로 배치시키지 못한 것

은 이 작품이 결정적인 매력을 발산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극장'은 TV에 대해 생각할 부분을 몇 가지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동양극장으로 상징되는 식민지 시대 대중연극의 풍경을 브라운관으로 소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공중파 방송이 고색찬연한 역사물이나 말랑말랑한 연예담을 주요 소재로 채택했던 관행을 되돌아 볼 때, 1930년대 동양극장을 둘러싼 대중 예술 공연을 주요 모티브로 설정했다는 것은 매우 의욕적인 컨셉으로 비춰진다. 이는 새로운 소재의 발굴로 기억될 만하다.

다음으로, '동양극장'이라는 컨셉 설정은 이미 영화, CF, 대중가요 등에서 불고 있는 복고 취미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점이

다. 이는 현실 사회가 불투명한 미래 전망 속에서 자백질하고 있기에 예측 가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낭만적인 회고 취미가 현실의식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점을 형성하지 못할 때 공허한 목소리만 남길 수 있음을 이 드라마가 보여준 셈이다.

마지막으로, '동양극장'의 내러티브 전개는 일종의 자기반영성으로서의 몸짓이었다는 점이다. 다 알려져 있다시피 동양극장을 위시한 대중연극의 물적, 인적 자원은 새롭게 등장한 영화와 TV의 직접적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KBS 2TV의 '동양극장' 기획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의 매체에 대한 기원 찾기, 또는 대중예술로서 TV 연속극의 자기 성찰하기라 할 수 있다.

박명진 극작가·영화평론가

대화의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K군에게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은 참 재미없는 날이다. 다른 집처럼 명절의 들쭉임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K군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제사를 모시고 성묘도 하며 동네 아이들과 논다고 신이 났던 날이 바로 설날과 추석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갑자기 이런 풍경이 사라졌다.

원래 큰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살아 생전에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분이 돌아가신 후 설날에 차례를 모시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간 큰집에는 제사상 대신에 간단한 다과가 차려져 있었고, 너무나 생소한 가정예배가 진행되었다. 함께 간 아버지 역시 황당해 하면서도 일단 그 분위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후 아버지와 삼촌 두 분이 별도로 모여 자신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차례를 모시자고 큰숙모에게 항의를 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마지막 차례가 되고 말았다.

민족 보편적 문화 '차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새로운 생선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모시는 행위는 세계 여러 민족에게 상당히 보편적인 문화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유독 이것을 강조하여 설날이나 추석, 그리고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도 빠지지 않고 조상제사를 모신다.

오늘날 우리가 모시는 제사는 중국 송나라의 주희가 마련한 성리학적 예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비롯한 예서(禮書)에는 '차례(茶禮)'가 없다. 이것은 성리학이 수용되기 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풍속에서 연유한다. 특히 차를 올리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이 '차례'가 된 이유는 고려시대 불교 때문이다. 사찰에서는 그 절의 고승들을 모신 명부전에서 음력 3월 3일에 처음 돌아난 초심으로 만든 차를 바치는 풍속이 있었고, 이것이 민간에 퍼져서 명절의 조상제사를 차례라 부르게 되었다.

결국 오늘날 한국의 2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 때 차례를 모시는 일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터부시하는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보면 이것이 당연히 못마땅하다. 하지만 서로 조금만 더 양보한다면 이러한 문명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신(神)의 범주에 조상을 넣지 않는다. 죽었지만 산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한국인의 조상관념이다. 그래서 제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 사람의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결국 돌아가신 분을 핵심에 두고 그 분과 혈연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일년에 두 번 정도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동질감을 강화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날 명절의 의미이다.

문화적 구조를 읽어라

지금처럼 도시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차례라는 축제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일은 서양인들의 크리스마스 명절과 다를 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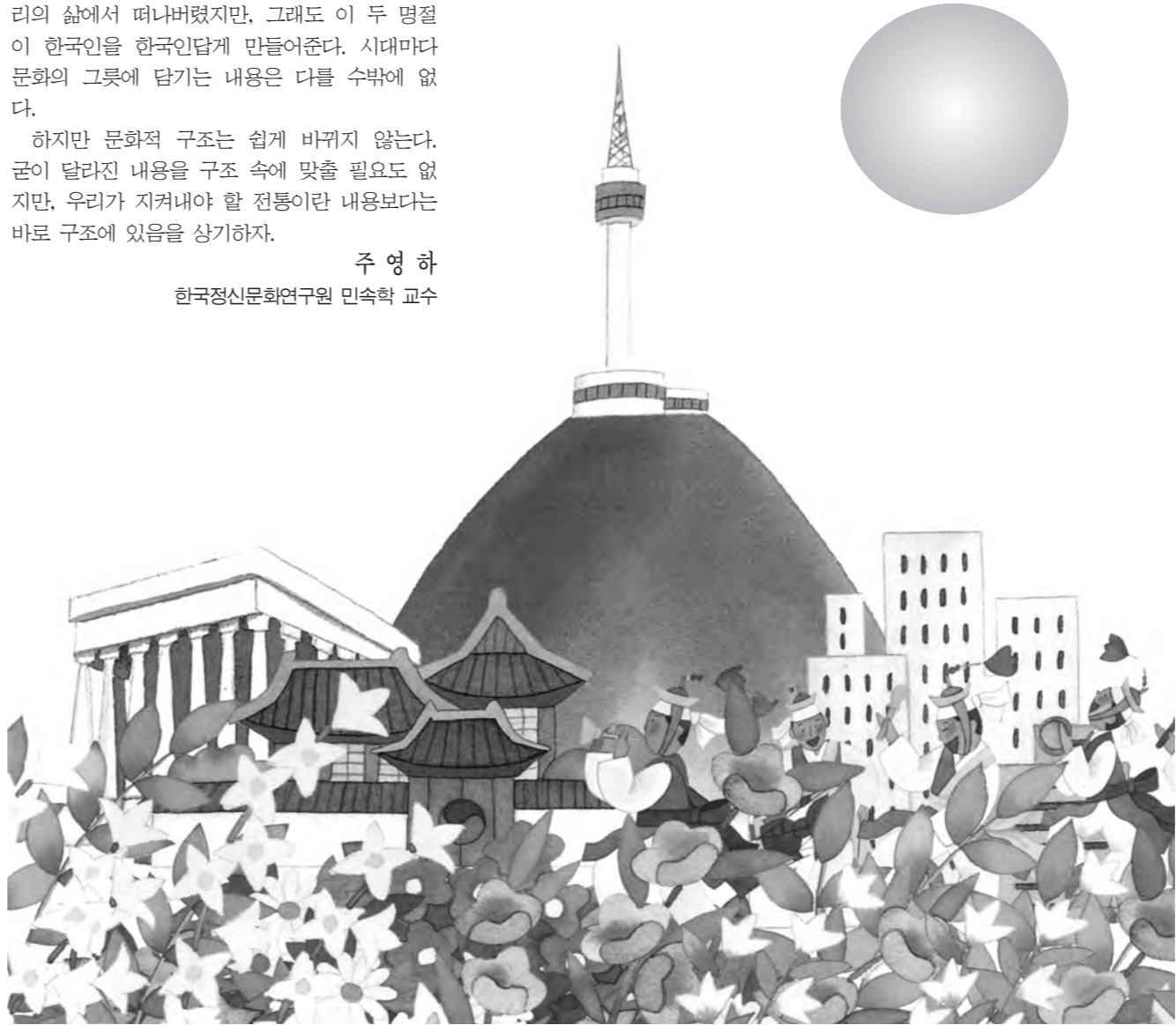
국가의 공휴일 지정에 따라 두 명절처럼 성대했던 단오·백중·중양·동지와 같은 명절이 우

리의 삶에서 떠나버렸지만, 그래도 이 두 명절이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들어준다. 시대마다 문화의 그릇에 담기는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화적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굳이 달라진 내용을 구조 속에 맞출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할 전통이란 내용보다는 바로 구조에 있음을 상기하자.

주영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속학 교수



우리 명절의 주체적 향유 방안 연구

'건우·직녀의 날' 문화행사 기획자 민승규 동문을 만나

“서구와 뒤섞인 명절대신 우리식으로”



날인 칠월칠석에 우리 농산물을 서로 주고받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 하나의 명절문화로서 행해진 지난 행사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 '우리 것으로 만드는 우리 문화'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과일주스나 떡, 인삼초콜릿 등을 판매하고, 국산 허브나 야생화 향수 같은 선물용품을 전시했다. 또한 추억을 되살리는 '손톱에 봉숭아물 들이기' 행사와 우리 농산물을 주고받으며 배필을 찾는 건우, 직녀 미팅 이벤트를 치루기도 했다. 이 행사는 참여자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컸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건우·직녀의 날'을 알리고 행사의 기초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 '건우·직녀의 날' 행사가 하나의 명절문화로서 자리 매김 하려면.
= 우선 '건우·직녀의 날'을 알리고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중이 쉽게 참여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억지스럽게 대중을 끌어들이는 것은 명절문화이니 즐겨라'식의 강요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발판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화수요자가 형성되고 확산된다면 하나의 명절문화로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좌) hviollet@dongguk.edu

같은 듯 다른 북한 명절 살펴보기

명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설'과 '추석'을 떠올린다.

우리가 이 두 명절을 다른 절기보다 중히 여기는 것은 국가에서 명절 전후의 기간을 3, 4일씩 연휴로 지정하는 것이나 평소보다 2, 3배의 시간을 길에 버려가며 민족 대이동을 벌이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명절과 비교해 북한의 명절은 어떤 모습일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인식하는 명절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 1981년 발간된 '현대조선말 사전'에서 명절을 정의하는 것만 보아도 '나라와 민족의 융성 발전에서 매우 의미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일', '사회적 일정한 부문이나 인민 경제의 한 부문에서 경축하는 기념일', '국제노동계급과 인민들의 사회적급해방과 전투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축하는 기념일' 등 우리와 다르게 사회주의 명절까지 포함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과거 사회에서 정승된 전통민간명절과 사회주의 체제에 걸맞게 새롭게 생성, 발전된 사회주의 명절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명절이 북한 사람들에게도 면면히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다. 1988년에는 추석, 1989년에는 설과 단오가 각각 공식적으로 복권

된 것이다. 이렇게 복권된 북한의 명절행사는 우리와 비슷해서 한식날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하고, 명절날 친인척과 이웃, 동료들과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명절은 각종 기념일과 휴식일의 형태로 다양하게 창조되었다.

사회주의명절은 '4월 명절'이라고도 부르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처럼 정확히 명절로 지정된 날부터 기념일 정도로 인식하는 명절까지 그 수준이 다양하다. 사회주의명절 중에서도 7대명절로 꼽히는 김일성 생일(4.15), 김정일 생일(2.16), 국제노동자절(5.1) 등은 대대적인 행사가 곁들여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다룬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통해 익히 보아왔던 카드섹션이나 마스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명절모습은 같은 듯하면서 우리와는 또 다른 색깔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명절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명절은 즐거운 날이다. 단지 한 역사를 통해 계승되어 왔지만 그 사회의 환경에 따라 명절의 형태가 조금 변화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표은영 기자
pisk20@dongguk.edu

지난 8월, 한국마사회 경마장에서는 '건우·직녀의 날(A & V Festival)' 행사가 열렸다. 한국벤처농업포럼과 한국마사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우리 명절의 하나인 칠월칠석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만의 명절문화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에 행사를 착안하고 기획한 민승규(농업경제 88졸) 동문을 만나 '건우·직녀의 날'의 의미와 행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 '건우·직녀의 날'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 갈수록 단오나 대보름, 칠월칠석 같은 명절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또한 우리만의 특색있는 명절문화를 살려내지 못해 고유의 명절에도 서구문화와 뒤섞인 문화를 즐기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반면 '발렌타인 데이'나 '화이트 데이' 등 국적불명의 기념일에는 초콜릿과 사탕을 주고받는 문화를 즐기고 있다. 이런 점이 안타깝던 차에 이를 변용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 건우, 직녀가 만나

메아리 이산가족

▲'애구, 세상에!' '내래 알아보았시오?'
짙줄, 그 슬프고 따뜻한 이름을 그려내고 있는 임관택 감독의 영화 '길소뜸'은 분단으로 헤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의 눈물과 포옹이 아니다. 결국 무정한 세월을 이겨낸 그들이 걸게 되는 길은 또 다른 헤어짐이 안겨준 '고통'이었다.

▲먹구름이 덮여있던 남북관계가 햇살을 먹기 시작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풍작을 거두면서 남북 공중보도문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민간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조기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두 번째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재가동 시킨다는 아슬한 계획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대박회담인 셈이다.
▲'오마니' '아들아' '여보'...
다음달 16일이면 서울과 평양에서는 비명소리라도 같은 절규가 또다시 넘쳐날 것이다. 반세기가 넘게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오르면서 분단도 이념도 모두 녹아 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5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응어리진 이산의 아픔을 달래기에 이를 받은 너무 짧다. 이산가족 상봉은 그들에게 있어 내

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만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실현과 같은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요원해 보인다.

▲한가위를 맞은 고향 땅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오른다. 한가위를 밝히는 달은 찌그러진 우리민족의 고통과는 달리 넉넉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재회와 헤어짐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영화 '길소뜸'은 쓰러진 세월의

흐름에 따른 이질감을 절감하면서 막을 내린다. 그러나 이 잔인하고 끈질긴 '분단의 고통'이 더 이상 현실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남북의 '핏줄 만남'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별과 고통을 떠올리지 말자. 온 국토가 슬죽인 채 온 민족이 감격하는, 온 겨레가 행복찬 날이니까 말이다.
김지혜 문화부장
wisdom@mail.dongguk.ac.kr

세소식

한국의 전통조경

본교에 재직중인 홍광표·이상윤 교수가 들려주는 한국 전통조경 이야기.

특정시대와 장소의 문화를 바탕으로 경관을 만들어내는 '조경'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낯낱의 삶을 보여준다.

홍광표·이상윤 공저 / 동국대학교 출판부 / 정가 1만4천원.

중국 현대 신사실주의 대표작가 소설선

본교에 재직중인 김영철 교수가 중국 신사실주의 대표작가들이 중국인과 중국사회의 당면 현실에 대해 엮은 4편의 소설을 번역한 것.

작은 아이를 화자로 하여 중국 최하층민의 생존문제와 삶의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류작가 광광의 '동경'을 시작으로 대표작가 류허, 류전원, 초리가 각각의 시점으로 바라본 중국사회의 단면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광광, 류허, 류전원, 초리/ 김영철 역/ 책이 있는 미술/ 정가 1만5천원.

들뢰즈-존재의 함성

현대 프랑스 철학의 대가인 알랭 바디우가 자기의 대적점에 서있던 철학자이자 자기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철학자 들뢰즈와 나누었던 갈등을 소개한다.

바디우는 이 책에서 들뢰즈 철학의 정수를 정리하고 그에 관한 반박을 펼침으로써, 서신교향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알랭 바디우 저/ 박정택 역/ 이학사/ 정가 1만5천원.

칼 노래 칼춤

지난 26년간 탈춤, 판소리, 풍물 등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놀이패 '현두레'가 마당극 '칼노래 칼춤'으로 관객을 찾는다.



연극은 올해 다시 보고 싶은 마당극 1위로 뽑혀 그 작품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7시 30분(월-목)/ 4시 30분·7시 30분(금·토)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수문회관)에서.

길 떠나는 가족



그의 천재적 예술성과 비극적인 개인사, 그가 살아온 집결의 한국현대사를 파노라마로 엮은 이번 연극은 자신의 예술혼을 지켜나가기 위해 영혼을 불사른 이증섭을 되살려 낸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인 그의 일생을 통해 정신적 가치가 상품의 가치로 환원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상기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음달 7일까지. 7시 30분(월-목)/ 3시·7시 30분(금·토)/ 3시(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문의 399-1647

제29회 신라문화제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가 현대에 재현되려 하고 있다. 비천무, 가배놀이, 대취타 등 신라의 전통 춤과 오락 그리고 고 음악이 빛나는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문의 054)779-6631

들꽃차회



대학생들이 개발한 다도시범과 찰레차, 연차, 메밀차 등 전통차 시음회도 있을 예정이다. 청량한 하늘 아래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인암지에서. 문의 054)774-8545

해외대학가는 지금 - 캐나다의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복지주체, 대학내 자원봉사자가 대부분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캐나다교육 ... 봉사활동 통한 교과목 실습실현

인천국제 공항으로부터 밴쿠버 국제 공항, 그리고 다시 켈러리 공항까지 12시간에서 15시간. 그곳에서 켈러리에서 그레이하운드라는 고속버스를 타거나 또는 총 20명의 승객이 사이좋게 오기종기 모여앉을 수 있는 경비행기를 타면 50분, 그나마 3-4시간 연착은 기본이다.

결국 인천에서 꼬박 20시간에서 24시간을 서쪽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메디슨 핫 시티라는 작은 도시에 다다를 수 있다. 단지 이 도시를 방문하는 그 자체로도 얼마 찾아 삼만리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공력이 필요한 것이다.

메디슨 핫 시티는 인구가 5만도 채 안 되는 알버타주의 작은 도시이다. 그리고 메디슨 핫 시티는 이 도시의 유일한 대학으로 작은 규모의 단과대학이다. 핫 시티의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학년을 마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며 단지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역량을 높여간다.

따라서 캐나다의 대학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보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이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섬'이라면 캐나다의 대학은 지역사회 속에 깊숙히 동화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대학의 존재는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곳의 복지는 대개 교회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의존하는데,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대학을 매개로 구성된다.

메디슨 핫 시티에서는 Peer Support Center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마약이나 알콜중독, 성교육(이곳에서도 성교육 부재로 인한 10대의 임신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의 소외 문제, 장애인 복지 문제 등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일부는 해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나 유아교육등의 실습을 지역사회 장애인과 아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매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Volunteer fair가 열리는데 이를 통해서 자원봉사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부러우면서도 놀라운 점은 이 행사가 대학의 다른 행사들 못지 않게 대규모로 오랫동안 개최되며 학생들은 이 행사에 굉장한 호의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단체 사무소의 물품정리를 돕고 있는 캐나다 여학생들의 모습.

동아리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는 다르게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깊은 그네들의 가치와 교육이 인상적이다. 해외에 나가면 비로소 애국자가 된다고. 부럽고 배우고 싶은 점보다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대학을 알리는 일이 아직은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 같다.

하지만,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과 지역, 대학과 지역, 나아가서 가족과 국가를 연결하는 캐나다인들의 모습에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되면 아직은 우리의 나이 같 길어 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 수 없다.

최은진 (영문4·캐나다 유학생)

동아리 탐방 - 경주캠 음악동아리 '동국 음악회'

다양한 음악 통해 '청춘'을 노래한다

한창 공연준비 ... 학생들 무관심으로 어려움 많아

헤아 어둡해질 무렵 온방골에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그 노래를 따라가다 보면 동국 음악회(이하 동음) 회원들을 만날 수 있다. 동음 회원들은 벌써부터 11월에 있을 정기 추계 발표회 준비에 한창이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합창 연습은 중창 연습, 개별 연습으로 이어진다. 힘든 연습시간을 이겨내는 그들은 항상 '마음은 즐겁게, 자세는 진지하게'라는 신념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공연의 뒷풀이 자리에서는 관객들과 함께 하는 동음 회원들의 밝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동음 공연에 매료된 관객들이 뒷풀이 자리까지 참석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또 다른 공연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은 동음의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미가 풍겨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동음은 올해로 21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깊은 역사만큼이나 그들에게는 든든한 선배들이 많다. 80년대 MBC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에서 울린 화려한 입상 경력은 동음 회원들을 으스스하게 만든다.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도 공연마다 꼭 찾아 오셔서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세요." 동음 가족들 모두는 그런 선배들에게 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연주하고, 노래한다.



정기 추계발표회를 대비해 틈틈이 기타를 켜며 목소리를 맞추는 회원들의 모습.

공연을 준비하면서부터 그들의 공연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흠뻑 땀도 무대에 서는 설렘과 기대감에 모두 씻겨져 내려간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무대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무대 위에서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요즈음 공연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기도 한다. 동아리 공연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에게 가장 힘든 난관이다. 뿐만 아니라 관객들과 하나되지 못하는 공연본

위는 그들만의 집안잔치로 끝나게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관객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공연할 것이라 다짐한다.

이제 동음 공연을 찾으면 통기타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합창에서부터 랩까지 관객들이 요구하는 음악은 무엇이든지 들려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일상의 잔잔함을 노래하면서 변화를 서슴지 않는 그들에게서 살아있는 '청춘'을 느낀다.

<합>

llith@mail.dongguk.ac.kr

손짓으로 나누는 사랑 II "고향 잘 다녀 오세요"
고향: 양손을 펴 손바닥을 마주 보게 하여 배에 댄 후 아래로 내린다.
잘: 오른손을 펴 왼팔을 쓸어 내린다.
다녀: 오른손을 펴 가슴속에서 앞으로 내린다.
오세요: 오른손 검지를 세워 가슴 앞으로 댄다.

독자광고

Table with 2 columns: Day, Menu. Dongguk University Student Dining Program.

Table with 2 columns: Day, Menu. Sangrokwon Student Dining Program.

제7회 만해문화상을 공모합니다.
포스팅분: 3만원
공모기간: 2001년 10월 20일까지
문의: 문화,인민위원회(영남문화재단)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K교수 복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막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K교수 성추행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주캠 여학생실 도서 및 비디오 이용안내
경주캠 여학생실에서는 여성, 성관련 교양도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 비디오 테이프, 패션, 시사, 문화분야의 잡지 등 최신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동국한인연합축제 동의런계
동국한인! 함께 있을 때 우리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동의런계 기획단이 여러분을 허준동산으로 모십니다.
25:한얼문부터 시작하는 날
26:모두모여 하나되는 날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Table with 2 columns: Day, Menu. Gyeongju Camp Student Dining Program.

Table with 2 columns: Day, Menu. Gyeongju Camp Faculty Dining Program.